

장로교 총회 창립 114주년... “다시 초대교회 신앙으로”

한장총, 기념예배 드려... 코람데오 부흥협의회 설립도 기념

1885년 선교 시작 후 1912년 9월 1일 총회 창립

“개혁주의 장로교회 신앙 정체성 다시 돌아보자”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선 목사, 이하 한장총)가 1일 서울 중흥교회(담임 엄바울 목사)에서 ‘장로교 총회 창립 114주년 및 코람데오 부흥협의회 설립 기념예배’를 드렸다.

한장총에 따르면 1885년 한국에 장로교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1893년 장로교 선교공의회가 조직됐고, 1901년 조선예수교장로교회 공의회로 발전했다. 1907년 9월 17일 평양 정대현교회에서 독노회가 조직됐으며, 1911년 독노회에서 다음 해 총회를 조직하기로 결의, 1912년 9월 1일 마침내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창립됐다.

이날 평양의 경창문 안 여성경학원에서 당시 목사 52명, 선교사 목사 44명, 장로 125명 등 총 221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진행됐다. 초대 총회장으로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선출됐고, 부회장에는 한국인 길선주 목사가 선출됐다.

이날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감사예배 순서로 진행됐다. 조세영 목사(한장총 총무)가 인도한 예배에선 먼저 한장총 대표회장 이선 목사가 대회를 전했다. 이 대표회장은 “오늘은 장로교 총회가 창립한 지 114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이 기념예배를 계기로 장로교회가 한장총과 함께 더욱 한국교회를 섬기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엄바울 목사(예장 가독 총회장, 중흥교회 담임)가 환영사를 전했다. 한장총 코람데오부흥협의회 대표회장인 엄신형 목사(한장총 증경대표회장, 중흥교회 원로)가 인사했다. 엄신형 목사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며 “한장총 코람데오부흥협의회가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를 합치하게 일으켜 나가기를 원한다”고 했다.

축사는 김요셉 목사(한장총 증경대표회장)가 전했다. 김 목사는 “많은 장로교



한장총 대표회장 이선 목사가 대회를 전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기념예배 참석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장로교 총회 창립 114주년 기념예배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단들이 있지만 그들이 모두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신앙 정체성 위에 서 있는지, 오늘 장로교 총회 창립 114주년을 맞아 다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2부 감사예배는 맹상복 목사(예장 합동개혁 사무총장)의 인도로 박광철 목사(예장 예정 총회장, 한장총 공동회장)의 기도, 권오삼 목사(예장 보수 총회장, 한장총 공동회장)의 성경봉독, 중흥교회 할렐루야찬양단의 특별찬양, 엄신형 목사의 설교, 용승복 장로(한장총 회계)의 헌금기도, 특별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초대 사도들의 역사’(에스겔 47:12)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엄신형 목사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는 많은 역사를 일으켰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그만큼 지금 한국교회가 초대교회 신앙에서 많이 멀어졌다는 것”이라며 “그 때보다 환경은 더 나아졌지만 믿음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엄 목사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는 성령이 충만했고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다. 그들은 순교까지 각오했다”며 “우리로 이 모습을 사모하고 닮아야 한다.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와 빌립 집사처

럼 성령이 충만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자”고 권면했다.

이후 특별기도에선 △이승진 목사(예장 합동중앙 총무)가 한국 장로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 △김복래 목사(예장 웨신 총무)가 장로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강동규 목사(예장 개혁선교 총무)가 나라와 민족의 평안과 복음적 통일을 위해 △표성철 목사(예장 고려 총무)가 다음세대와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 각각 기도했다.

이어 인사한 한장총 대표회장 이선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

앗을 심으시고, 114년 전 장로교 총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는 부흥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 한장총이 다시 일어나, 한국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예배는 이석훈 목사(한장총 사무총장)의 광고, 가성현 목사(예장 합동동신 총회장, 한장총 공동회장)의 축도로 모두 마무리됐다. 김진영 기자

태여연 “낙태약 허가보다 법적·의료적 안전체계 마련이 먼저”

법제처·식약처에 공개질의... “허용 주수 절차 등 입법 없이 허가 안 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이 임신 중지약물(낙태약)의 수입품목허가와 관련해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낙태 허용 범위와 안전관리체계 등에 대한 법적 정비도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여연은 1일 공개질의서를 통해 “법제처가 8월 19일 임신중지약물의 수입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약사법상 안전성·유효성 등 허가요건을 충족한 경우 품목허가가 지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다만 태여연은 법제처의 해석이 특정 낙태약의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하거나 실제 품목허가를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해당 허가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에서 법률적 성격을 판단했을 뿐이며, 실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와 품목허가 여부는 식약처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태여연은 특히 법제처가 같은 법령해

석에서 “임신중단의 허용 주수·사유·절차 등 그 규율체계를 임법적으로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낙태 허용 범위와 절차, 미성년자와 취약여성 보호, 강요에 의한 복음 및 오남용 방지, 응급의료와 사후관리체계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물의 수입·유통부터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태여연은 법제처를 상대로 △임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품목허가를 먼저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 △이변 해석이 국회의 입법적 판단을 사실상 선결할 우려가 없는지 △약사법과 헌법·형법·모자보건법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검토했는지 △태아 생명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고려했는지 등을 질의했다.

또한 향후 국회의 임신중지 허용 주수를 법률로 정했을 때 식약처의 의약품 허가상 사용 가능 주수와 충돌할 경우 어느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미성년자와 취

약여성 보호 및 강요에 의한 복음 등의 문제를 헌법 법률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지도 물었다.

식약처에는 실제 낙태약 품목허가 심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질문을 제기했다. 태여연은 현재 심사가 정부 정책 방향과 관계없이 약사법과 과학적 안전성·유효성·품질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법제처 회신 이후 심사 절차나 방침에 변화가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2021년 최초 품목허가 신청 당시 미제출 또는 미흡했던 자료가 2024년 12월 이뤄진 3차 신청에서는 모두 보완됐는지 물었다. 2023년 2차 신청 당시에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이 선행돼야 작성할 수 있는 허가자료가 있다는 이유로 심사가 잠정 중지됐던 만큼, 관련 법률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의 심사 중지 사유가 해소됐는지를 요구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자료 또는 가교자료 제출 여부도 질의했다. 태여연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T)의 민족적 요인에 관한 가이드라인(E5)을 언급

하며 해외 임상자료만으로 한국인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경우 그 과학적 근거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낙태약 사용에 따른 중대한 출혈, 감염, 불안전 낙태, 임신 지속, 추가 수술과 응급실 방문 및 입원 가능성에 대한 평가 기준도 질의 대상에 포함됐다. 자궁외임신 확인과 투약 전 진단, 투약 후 낙태 완료 여부 확인,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 접근과 외과적 처치 등을 품목허가 조건이나 위해성관리계획에 포함할 것인지도 물었다.

국내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약물 사용 후 수술 사례에 대한 식약처의 평가도 요구했다. 태여연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2018년 약물 사용 경험자 가운데 약물 사용 후 수술을 받은 사례가 조사됐고, 2021년 조사에서도 같은 사례가 확인됐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이를 국내 도입 시 응급·후속 처치체계를 검토하는 자료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질문했다. 다만 태여연 역시 이 조



최근 청와대 앞에서 낙태약 도입 반대 기자회견이 열린 모습. ©기독일보 DB

사 결과를 허가된 동일 의약품의 실패율이나 부작용률로 직접 환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품(FDA)이 진행 중인 미 페프리스톤 안전성 연구에 대한 검토 여부도 질의했다. 태여연은 FDA의 안전성 재평가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내 품목허가를 결정할 경우 어떤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인지, 향후 새로운 안전성 정보가 확인되면 허가 조건 변경이나 위해성관리 강화, 필요한 경우 허가 취소까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태여연은 낙태의 법적 허용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의 의약품 허가 조건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사실상의 낙태 기준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국회가 향후 임신중지 관련 법률을 제정·개정할 경우 의약품 허가 사항과 법률이 충돌하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물었다.

태여연은 “임법도, 의료체제도,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태약부터 허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기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체적인 서면 답변을 요청했다. 답변이 없거나 불충분할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한 자료 제출 요구와 국정감사 대응,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관련 사실관계의 언론 공개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JESUS LOVE

마음을 전하는 단체 선물

교회 단체 상품 주문 문의

볼펜 · 선물세트 · 행사 기념품

온라인 주문 및 단체 문의

02-723-1335

www.withjesuslove.shop



QR로 바로 주문

UV 장우산



고급 볼펜



세라믹 텀블러



말씀 머그컵



“아담의 역사성 부정하는 유신진화론, ‘구원론의 붕괴’로 이어져”

[인터뷰] 김병훈 합동신대 석좌교수

진화론과 기독교 신앙의 조화를 모색하는 ‘유신진화론’은 오늘날 과학 시대에 발맞춘 지적 타협안으로 포장되어 교회 내부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실제로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지난 5월 제120차 총회에서 유신진화론을 이단으로 공식 규정했다. 특히 이 결정은 지난 2024년 유신진화론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 있던 서울신학대학교 박영식 교수의 해임 논란과 맞물려 교단 내용을 심화시켰고, 결국 이번 총회 결의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유신진화론이 왜 기독교의 근간을 허무는 치명적 독소인지, 그 신학적 해악을 알고자 최근 김병훈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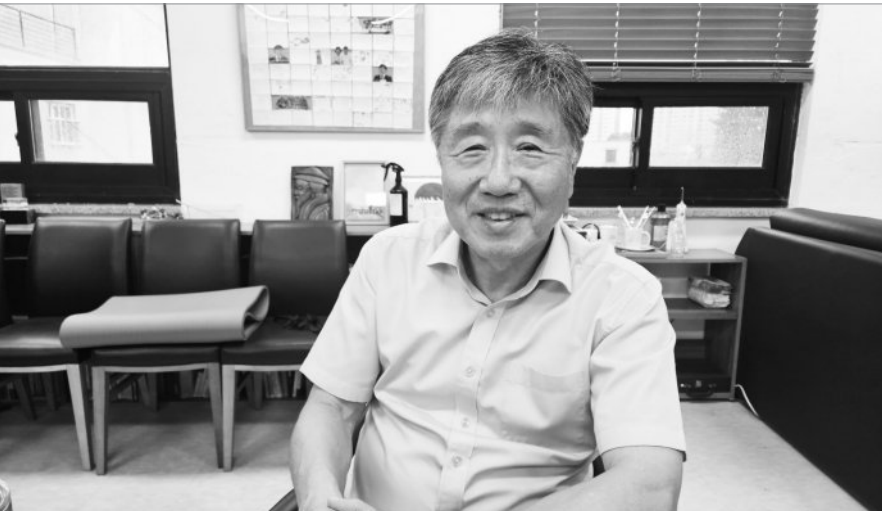
—유신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창조와 진화의 조화는 왜 인간의 타락과 원죄 교리를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구원론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는가?

“유신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는 역사적으로 한 개인으로서의 아담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 곧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역사적·생물학적 단일 기원론(Monogenism)을 전면 부정한다는 점에 있다. 성경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행 17:26)라고 선

언하며, 첫 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 2:7)고 한 역사적 실체로 명시한다.

그러나 데니스 바벤(Denis Alexander)이나 프란시스 콜린스(Francis Collins) 같은 유신진화론 학자들이 주장하는 진화의 필연적인 발전 과정에 따르면, 오늘날의 현생 인류 이전에 반드시 선행 인류가 유전적 집단을 이루어 존재했어야만 한다. 따라서 유신진화론은 그 선행 인류 집단 중 어느 한 집단을 문학적·신학적으로 ‘아담’이라 칭했거나 상징적으로 불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아담을 단지 ‘원형적 아담’이나 ‘상징적 대표’로 단순화함으로써, 창세기 2-3장의 초자연적 직접 창조와 타락의 역사성을 우화로 탈바꿈시키는 신학적 실수를 범하게 된다.

이처럼 다원 기원론(Polygenism)을 취하거나 아담을 상징적 존재로 보게 되면, 프란시스 튜레틴(François Turretin)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6장 2-3절)가 천명하는 인류의 혈통적·언약적 시조성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담과 맺으신 행위언약의 대표성이 성립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상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롬 5:17)이라는 말씀처럼 아



김병훈 교수. ©노형구 기자

담의 첫 범죄로 후손에게 타락한 본성과 죄가 전이된다는 원죄론의 토대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유신진화론은 인류가 등장하기 전부터 수억 년 동안 죽음과 멸종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성경은 ‘죄의 삯은 사망’(롬 6:23)이며 죽음은 죄의 결과로 들어왔다고 선언한다. 죄가 있기 전부터 수억 년간 죽음이 존재했다는 유신진화론의 주장이 성경의 구속사적 가르침과 양립 가능한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성경은 ‘죄의 삯은 사망이요’(롬 6:23),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롬 5:12)라고 명백히 밝힌다. 즉, 성경에서 죽음은 하나님의

본래적 창조 질서가 아니라, 아담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공의로 내리신 사법적 형벌이자 저주이다.

유신진화론자들은 아담의 타락 이전 수억 년 동안 존재했던 죽음은 단순한 동물의 생물학적 죽음일 뿐 인간의 영적 죽음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의 범위를 심각하게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풀기 어려운 치명적인 모순에 봉착한다. 진화론의 메커니즘 자체가 수억 년 동안 끊임없는 생물학적 사멸과 적자생존의 도태 과정을 필수적인 전제로 삼기 때문에, 만약 아담의 타락 이전부터 이미 처참한 죽음과 멸종이 자연의 법칙으로 존재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선한 창조 세계의 정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욱이 아담의 타락 이전부터 이미 육체적 죽음이 자연스러운 질서로 존재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기독교 구속사의 뼈대는 연쇄적으로 무너진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의미가 변질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죽음은 단순한 영적 형벌의 당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인 육체적 죽음과 저주를 우리 대신 온전히 담당하신 대속의 죽음이다. 만약 타락 전 육체의 죽음이 죄의 형벌이 아닌 본래부터 존재하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죽음의 형벌을 당하실 신학적 필연성과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유신진화론의 주장대로 죄의 형벌이 영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대속 역시 영적으로만 이뤄지면 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마지막 날 성도가 누리게 될 ‘육체의 부활’ 교리 역시 근본적인 기반을 잃게 된다. 유신진화론의 주장대로 육체의 죽음이 죄의 저주자 아니라 진화의 오랜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반된 산물에 불과하다면, 구속받은 성도가 부활을 통해 다시 영원한 육체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야 할 논리적 당위성 역시 성립할 수 없다. 결국 죽음을 죄의 결과로 보지 않고 진화의 수단으로 수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육체적 대속과 부활이라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를 지탱하는 구속사적 뼈대 전체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첫 사람 아담(사망)’과 ‘마지막 아담(생명)’의 연합을 통해 구원의 논리를 세웠다. 유신진화론의 논리대로 첫 사람 아담을 진화 과정의 상징적 산물로 볼 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 갖는 객관적 역사성은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가?

“구약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23-38절)은 아담을 구속사의 실제 역사적 시조로 기록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창세기의 역사적 사실성을 직접 확증하셨다. 이를 바탕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8-19절에서 ‘첫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그리스도’를 엄밀하게 대조하며 구원의 논리를 전개한다. ‘그러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신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롬 5:18-19)

바울이 위 로마서 5장 18-19절에서 사용한 대표적인 헬라어 구문은 ‘호스페르(ὥσπερ, 마치 ~처럼)’와 ‘우토스(οὗτος, 이와 같이)’의 상관 구문인데, 이 ‘호스페르... 우토스’ 구조는 두 인물의 개별적·역사적 사실성이 정확하고 동일한 평형을 이룰 때에만 성립하는 정교한 사법적 논리구조이다.

따라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육체적 죽음과 부활이 시간 속에서 일어난 실제 사실이라면, 그와 병행 관계에 있는 첫 사람 아담 역시 반드시 역사적·실체적 인물이어야만 이 평형 구조와 구원론적 논리가 성립된다. 반대로 원인이 되는 첫 사람 아담을 단지 신화나 비유, 상징에 불과한 존재로 격하시킨다면, 그 원인에 대응하여 결론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과 역사적 부활 역시 단지 하나의 신화나 상징적 이야기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유신진화론은 악육강식과 멸종을 하나님의 창조 도구로 본다. 수억 년간의 참혹한 죽음과 생존 경쟁을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라 주장할 때,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에는 어떤 치명적인 모순과 균열이 생기는가?

“유신진화론처럼 수억 년의 악육강식과 멸종을 하나님의 창조 방식으로 수용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속성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성경이 증거하는 창조주는 만물을 지으신 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선언하셨으며, 그 피조세계 안에는 본래 생명의 존귀와 조화가 가득했다. 그러나 진화론의 메커니즘은 본질상 수많은 생물의 무자비한 도태와 적자생존, 그리고 참혹한 고통을 필수적인 전제로 삼는다. 악육강식과 생존 경쟁을 거쳐 인간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은 결국 피조세계에 가득한 악과 저주, 무의미한 고통의 원인조차 하나님께서 직접 기뻐하고 사용하신 창조의 도구로 돌리는 심각한 신론적 왜곡을 낳는다. 이는 하나님의 선하신 본성 속에 악의 기원을 내포시키는 모순을 범하게 된다.

둘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의 속성에도 심각한 균열이 생긴다. 진화론의 핵심 과학적 기제는 목적지가 없는 ‘무작위적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라는 수학적 착오의 연속이다. 만약 유신진화론의 주장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염두에 두셨으면서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억 년 동안 무수한 실패와 돌연변이, 그리고 적응하지 못한 생물들의 절멸과 참혹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방식을 택하셨다면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능력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마이클 베히(Michael Behe) 등이 제기하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Irreducible Complexity)’의 개념을 대입해 보면 이 모순은 더욱 극명해진다. 생명체의 세포 내 기관이나 면역 시스템처럼, 수많은 하위 요소가 동시에 완전한 형태로 갖춰지지 않으면 아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고도의 복잡계가 존재한다. 진화론의 점진적 무작위 변이 방식대로라면, 이 중간 단계의 불완전한 구조들은 생존에 아무런 이점을 주지 못하거나 오히려 도태의 원인이 될 뿐이어서 기능적인 완성에 이를 수 없다.

이러한 복잡성을 지닌 생명체가 출현하기까지 수억 년의 세월이 흘렀다면, 그 과정에서 중간 단계의 생물들은 수많은 무익한 결함과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 잔인한 고통의 과정을 하나님이 창조의 수단으로 삼으셨다고 보는 것은 신학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왜냐하면 말씀 한마디로 단번에 완전하고 조화로운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비효율적이고 잔인한 자연 도태의 방식을 하나님의 창조 지혜로 미화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전능성과 주관적 지혜를 크게 훼손하는 치명적인 모순을 낳게 된다.”

—유신진화론의 논리대로 진화론의 ‘누면 우연’과 성경의 ‘목적 있는 설계’ 세계관을 조화시키려 할 때 발생하는 구체적

인 신학적·논리적 충돌은 무엇인가?

“유신진화론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치명적인 논리적 속임수와 허구에 기초하고 있다. 진화론의 본질적 기제인 ‘무작위적 돌연변이(누면 우연)’는 철저히 계획 없는 목적성, 사전 계획, 그리고 완성된 설계 구조를 배제한 통계적·물리학적 확률 과정이다. 즉, 진화론의 전체에 따르면 돌연변이는 어떠한 의도나 방향성 없이 우연히 일어난다. 만약 유신진화론 주장대로 우연히 발생한 변이가 생명체로서 의미 있는 변화로 존속하고 다음 단계로 발전하려면, 이미 그 체계를 뒷받침하는 정교한 유전자 정보와 생명 통제 시스템이라는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우연과 설계는 출발점부터 그 전체가 서로 충돌하기에 조화될 수 없는 개념이다.

그러나 유신진화론자들은 자신들의 진화적 세계관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의 섭리 개념을 교묘하게 끌어다 쓴다. 성경에서 제비뽑기(잠 16:33)나 롯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룻 2:3)처럼 인간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 안에서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 유신진화론은 바로 이 성경의 섭리 속 ‘우연’ 개념을 오용하여, 아무런 목적도 설계도 없는 무방향적 진화 과정에 억지로 적용하려 드는 것이다. 즉 ‘방향성 있는 우연’, ‘목적성 있는 우연’이라는 개념을 창출한다.

하지만 이는 성경적 섭리의 본질을 왜곡한 결과다. 진화론과 타협하기 위해 만들어진 완벽한 형용모순이자 논리적 파탄이다. 왜냐하면 ‘우연’이란 본질적으로 목적이나 원인의 방향성이 결여된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우연에 목적성을 부여하는 순간 이미 ‘우연의 정의 자체는 완전히 깨지게 된다.

철저하게 무신론적 입장을 취하는 진화론자들조차 이 논리적 허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 이들은 유신진화론을 향해 ‘우연과 목적 있는 설계는 철학적으로 명백한 모순이다. 진화론은 무목적적 우연의 체계인데 왜 거기에 하나님과 설계를 덧붙여 하이브리드(혼종)로 만드느냐’고 날카롭게 조롱한다.

신학적으로 볼 때도 피조물들이 인식하는 ‘존재론적 우연’조차 하나님 편에서 그 모든 과정이 확실한 필연일 뿐이다. 따라서 무방향적 우연의 메커니즘과 하나님의 목적 있는 설계를 억지로 조화시키려는 유신진화론의 시도는 신앙과 과학 양쪽 모두에서 배척당하는 심각한 논리적 오류이자 범주 오류일 뿐이다.”

—진화론을 수용하지 않으면 ‘반지성적’이라는 세속의 비판이 있다. 성경의 무오성과 창조의 기록을 문자적으로 고수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참된 기독교 자성의 출발점이 되는지 설명해 달라.

“참된 기독교 지성이란 성경의 보편적인 독백과 성경 자체의 장르적 성격에 순종하는 데서 출발한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록은 시(Poetry)나 비유가 아니다. 이는 명백한 역사적 서사(Narrative)이다. 예수님과 바울, 사도들 역시 창세기의 창조, 아담, 타락, 결혼 제도를 모두 객관적 역사 사실로 전제하고 인용하셨다. 만약 창세기의 역사 사실성을 버리고 이를 비유나 상징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하면, 성경의 무오성과 권위는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특히 오늘날 세속 과학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세기 1-3장의 역사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부정한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오병이어의 기적, 홍해 사건, 나사로의 부활, 나아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까지도 모두 부정해야 한다. 이 모든 기적적인 사건 역시 경험적 과학의 기준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성경의 모든 기적을 단순한 ‘상징적 이야기’로 격하시키는 합리주의적 자유주의 비평학으로 빠지게 된다.

따라서 시대에 따라 변하는 잠정적인 가설에 맞추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 말씀을 굴절시키거나 타협하는 것은 결코 참된 지성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의 역



의학의 미래를 선도합니다

존슨앤드존슨은 헬스케어 솔루션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앞당겨 전 세계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하며, 내일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끝없이 도전합니다.

(주)한국안센은 존슨앤드존슨 제약부문의 국내 법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janssen.com/johnson-johnson-innovative-medicine
혹은 www.janssen.com/korea 에서 확인하세요.



Johnson&Johnson

사성과 무오성을 굳게 견지하면서, 진화론이 숨기고 있는 철학적 전제의 비합리성과 과학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꿰뚫어 보는 것이야말로 참된 기독교 지성의 올바른 태도다.”

—반대로, 세속 과학이 객관적 사실처럼 주장하는 진화론이 확고한 정설이 될 수 없고 또 다른 ‘믿음의 영역’이자 가설에 불과한 이유는 무엇인가?

“진화론은 과학적 증거로 완벽히 입증된 절대적 정설이 결코 아니다. 겉으로는 철저히 객관적인 과학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 논리 구조를 깊이 들여다 보면 ‘방법론적 자연주의(Methodological Naturalism)’라는 증명 불가능한 철학적 전제가 뼈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리적 비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찰 과학(Observational Science)’과 ‘기원 과학(Origin Science)’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우리가 실험실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반복해서 검증할 수 있는 영역은 매우 제한적이다. 환경에 따라 생물의 형태가 조금 변하거나 세균이 항생제 내성을 갖는 현상 등이 그 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존재하는 하나의 종(種) 안에서 유전자 정보가 재조합되거나 소실되며 일어나는 소규모의 적응, 즉 ‘미시진화’에 불과한 관찰 과학의 영역이다.

문제는 세속 과학이 관찰 가능한 이 작은 변화들을 근거로 엄청난 논리적 도약을 감행한다는 점이다. 수억 년 동안 무기물에서 단세포로, 그리고 단세포가 맹목적인 돌연변이를 거쳐 인간으로 진화했다는 거대한 기원론인 ‘대진화’를 객관적 사실처럼 주장한다. 인류 이전에 생

명이 어떻게 처음 출현하고 전혀 다른 종으로 나뉘었는지 시공간 속에서 직접 관찰하거나 실험실에서 재현해 낸 과학자는 아무도 없음에도 말이다. 즉, 대진화는 관찰 과학이 아니라 과거의 흔적을 추론하는 기원 과학의 영역이다.

이처럼 관찰 불가능한 과거의 기원을 설명할 때, 세속 과학은 자의적인 규칙 하나를 미리 세우둔다. 바로 ‘세상의 모든 기원과 현상은 오직 자연 내부의 물질적 원인과 우연으로만 설명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이는 진리 탐구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초자연적 창조나 개입’이라는 정답의 가능성을 아예 제거해 버리는 작업이다. 초자연성을 완전히 배제한 채 남은 물질적 원인들로만 억지로 파즐을 맞추려다 보니, 결국 ‘눈먼 우연에 의한 진화’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세속 과학이 주장하는 대진화는 순수한 객관적 데이터의 산물이 아니다. ‘초자연적인 것은 없다’는 무신론적 철학적 신념의 안경을 낀 채, 제한된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낸 거대한 학문적 ‘가설’일 뿐이다. 진화론 역시 창조론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세계관적 전제를 믿고 받아들여야만 성립하는 또 하나의 신념 체계이자 믿음의 영역이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성경)보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가변적인 현대 과학적 가설을 더 상위의 권위로 두는 태도가, 결국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어떻게 무력화하는지 지적해 달라.**

“유신진화론 진영은 과학과 신앙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보완한다는

이론바 ‘상보설’을 내세운다. 즉, 과학은 창조의 ‘방법(How)’을 설명하고 성경은 창조의 ‘목적과 의미(Why)’만을 다루므로 양자가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만 평화로울 뿐, 실제로는 현대 과학의 자연주의적 가설을 성경적 계시 위에 군림하게 만드는 교묘한 프레임이다.

성경은 결코 추상적인 도덕이나 관념적인 ‘이유(Why)’만을 말하는 책이 아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시공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말씀으로)’, ‘무엇을’, ‘누구를 통해’ 세상을 지으셨는지 그 객관적이고 실재적인 역사적 사실(How)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

자연주의에 바탕을 둔 진화론적 가설을 지식의 최고 권위로 수용하는 순간, 치명적인 주객전도가 일어난다. 성경이 증언하는 객관적 역사의 기록들은 과학의 잣대에 밀려 단지 고대 근동의 신화나 상징적 비유로 격하되어 버린다. 결국 과학이 허용하고 인정하는 태두리 안에서만 성경 구절을 취사선택하게 되며, 이는 곧 가변적인 세속 학문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최종 해석자(Final Interpreter)’의 자리를 탈탈하는 결과를 낳는다.

가장 심각한 비극은 성경적 창조의 역사성을 세속 과학에 내어줄 때, 기독교 윤리를 지탱하는 절대적 기준도 연쇄적으로 붕괴한다는 점이다. 인간의 기원을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목적 있는 창조가 아니라 무작위적 돌연변이와 진화의 우연한 산물로 규정하게 되면, 인류의 존재 목적은 사라지고 포스트모더니즘적인 도

덕적 상대주의만 남게 된다.

특히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남녀의 창조와 결혼 제도가 역사적 사실이 아닌 진화 과정의 산물이나 신화로 부정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창조 질서’가 해체된다. 그 결과 동성애나 젠더 이슈, 성 윤리 문제 등 세속화의 거센 파도 앞에서도 성경의 권위로 단호한 윤리적 경계를 세울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끝으로 유신진화론이 청년 신학도들과 다음 세대의 영적 상태에 미치는 치명적인 해악은 무엇이며, 이에 대해 어떤 신학적·목회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

“유신진화론의 수용은 기독교 신앙의 뼈대를 이루는 계시의 유기적 통일성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첫째, ‘창조-타락-구속-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상실과 구원론의 붕괴다. 유신진화론자들은 창조와 타락의 역사성(팩트)을 배제한 채 구원론(의미)만 따로 떼어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타락-구속-하나님 나라(새 창조)’라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이고 거대한 구속사적 서사를 뼈대로 삼는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완전한 창조 세계가 아담이라는 역사적 시조의 타락으로 인해 저주 아래 빠졌기에 요청되는 회복의 은혜다. 창세기 1-3장의 역사성을 신화로 과편화하면 타락의 실제적 인과관계와 심판의 절대적 기준(율법)이 사라진다. ‘첫 사람 아담’의 역사적 타락(병의 원인)이 허구라면,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치료)은 물론이거니와 마침

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향한 영광스러운 구속사적 소망 역시 실제 없는 관념적 고백으로 전락하고 만다.

둘째, 종말론적 소망의 상실이다. 유신진화론은 인간의 영혼과 정신마저 왜곡한다. 진화론적 사고를 끝까지 밀고 가면, 인간의 도덕과 정신은 집단 생존을 위한 뇌 생리학적 진화의 산물로 환원된다. 육체는 진화했고 영혼만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다는 어설론 타협론은, 결국 죽음 이후 육체와 함께 영혼도 소멸한다는 ‘사후 영혼 존재 부정론’으로 기울기 쉽다. 더 나아가, 이는 성도가 대망하는 ‘종말론적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뿌리째 흔든다. 만약 이 땅의 첫 창조가 138억 년간의 무수한 멸종과 참혹한 약육강식이라는 시행착오적 진화의 결과라면, 역사 속에서 죄와 사망을 끝장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순식간에 일할 ‘새 하늘과 새 땅(하나님 나라)’의 초자연적 완성은 하나님의 창조 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첫 창조의 역사성과 초자연적 능력을 부인하는 태도는, 결국 마지막 날에 단번에 이뤄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성도의 육체적 부활 소망마저 송두리째 앗아간다.

셋째, 공적 신앙고백의 해체와 신앙의 이원화다. 보편 교회가 사도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등을 통해 고백해 온 ‘공적 신학(Public Theology)’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적 창조 사실에 근거한다. 그러나 유신진화론은 검증되지 않은 자연주의적 가설에 성경 계시를 종속시킴으로써, 교회가 피 흘려 지켜온 객관적 진리 체계를 세속 이성 앞에 무릎 꿇게 만든

다. 그 결과 다음 세대 청년들과 신학도들의 내면에는 치명적인 ‘신앙의 이원화’가 자리 잡는다. 과학은 ‘객관적 사실’로, 성경은 ‘주관적 비유나 허구’로 규정하는 순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기적, 육체적 부활 같은 성경의 핵심 진리들도 역사적 사실로 믿지 못하게 되며, 성경을 단순한 도덕 교과서로 치부하는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다.

넷째, 유신진화론의 필연적 종착지는 불가지론이다. 우리는 유신진화론을 끝까지 밀고 나갔을 때 도달하는 필연적 귀결을 직시해야 한다. 칼빈대학교의 저명한 유신진화론자였던 하워드 빌(Howard J. Van Till) 교수는, 만물이 스스로 조직하도록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이신론적 발상에 철저히 저지다 결국 칼빈주의와 초자연적 신관을 모두 버리고 불가지론(Agnosticism)과 신앙 이탈을 선언했다. 이것이 타협의 궁극적 종착지다.

그러므로 ‘홀통한 기독교 지성인이 되려면 유신진화론을 수용해야 한다’는 세속의 오만한 프레임에 속아서는 안 된다. 참된 기독교 지성은 세속 과학의 패러다임에 성경을 뜯어맞추는 자들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 위에서 자연주의 가설이 가진 과학철학적 한계와 비합리성을 날카롭게 짚어내고, 피조 세계에 담긴 정교한 설계와 하나님의 권능을 정직한 학문적 데이터로 입증해 내는 자들이다. 학문적 세련됨이라는 포장지에 미혹되지 말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관의 최고 권위로 삼아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한 학도들이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노형구 기자

연명의료·안락사·의사조력자살 개념과 기독교적 입장은?

한교연·한국복음주의의료인협회, 광주서 생명윤리세미나 개최

한국교회연합(한교연)과 한국복음주의의료인협회(한복의협)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광주청사교회가 주관한 생명윤리세미나가 8월 30일 광주청사교회에서 ‘연명의료부터 안락사, 의사조력자살-기독교인의 바른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서 한교연 대표회장 천한 목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천 목사는 “많은 사람이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하여 말기 상황에서 연명치료와 같은 부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안락사를 지지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올바른 지식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낙태와 안락사 등 생명을 경시하는 정책들의 압박을 막아야 한다고 강

조했다.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 나종갑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한복의협의 활동을 평가하고 광주에서 생명윤리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는 데 감사의 뜻을 전했다.

2부에서는 김수정 성누가병원 내과 원장이 강연했다.

김 원장은 고령화로 말기환자의 임종 문제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설명하면서, 고통스러운 연명의료에 대한 경험이 안락사 지지로 이어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명의료·의사조력자살·안락사를 선택하기에 앞서 각각의 개념과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존엄사’, ‘소극적 안락사’, ‘조력사

망’ 등의 용어가 혼용되면서 생명윤리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명의료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을 치료 효과 없이 연장하는 의료행위로, 회생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응급의료나 중환자 의료와는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연명의료결정은 효과가 없는 치료를 거부하는 것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예정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대해서는 각각 의사가 치명적인 약물을 투여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과 의사가 치명적인 약물을 처방하고 환자가 이를 복용해 사망하는 것으로 구분했다. 높은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찬성 여론 가운데에는 관련 용어에 대한 오해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교연 대표회장 천한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한복의협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 나종갑 목사가 격려사를 전하고 있다. ©한복의협



김수정 성누가병원 내과 원장이 강연하고 있다. ©한복의협

해의 사례를 소개하면서는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이 합법화될 경우 당초 말기환자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취지와 달리 사회적 악자 등이 죽음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경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생명이 하

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존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기독교인은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탕으로 죽음을 바라보며,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거나 단축하기보다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의 대안으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교회 공동체의 영

적 돌봄을 제시했다. 말기환자의 신체적 고통을 완화하는 동시에 삶의 의미 상실과 같은 문제에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한 대표회장은 “최근 생명을 경시하는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어 안타깝다”며 “생명윤리운동을 전국적으로 일으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ASHANIA

K-뷰티 혁신을 바탕으로 피부를 밝히고, 탄력을 더하며, 본연의 광채를 되찾아줍니다.

Powered by K-Beauty Innovation to Brighten, Firm, and Restore Your Natural Glow.



ASHANIA 홈페이지
https://ashania.com

ASHANIA
NECK FIRMING
SUPER VITAL DAY & NIGHT CREAM
PEPTIDE | ASPENGININE | HYALURONIC ACID
• TIGHTENING • ANTI-AGING
• HYDRATING • NOURISHING
1.7 FL. OZ. 50ML

ASHANIA
DARK SPOT
CORRECTOR CREAM
HYALURONIC ACID | VITAMIN C | NIACINAMIDE
MULTI-BLEND EFFECTIVE FORMULA
CONCENTRATE
1.7 FL. OZ. 50ML



ASHANIA
DARK SPOT
CORRECTOR CREAM
WITH COLLAGEN
2 FL. OZ. 1.60 ML

ASHANIA
DARK SPOT
CORRECTOR CREAM
WITH COLLAGEN
2 FL. OZ. 1.60 ML

제18회 개혁정론 포럼, ICRC 역사와 신앙고백적 의미 조명

임경근·정찬도 목사 발제...
ICRC 역사와 신앙고백적
교제 모델 등 주요 과제 다뤄

제18회 개혁정론 포럼이 8월 31일 오후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포항장로교회에서 'ICRC(국제개혁신교교회협의회)와 개혁주의 교회건설'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제개혁신교교회협의회(ICRC)의 역사와 신학적 의미를 비롯해 ICRC가 현재 논의하고 있는 주요 과제와 개혁교회가 오늘의 현실 속에서 신앙고백적 정체성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제18회 개혁정론 포럼은 2026년 한국에서 개최될 ICRC 대회를 앞두고 국제개혁신교교회협의회(ICRC)의 역사와 신앙고백적 성격을 살펴보고, 개혁교회가 오늘의 현실에서 신학적 정체성과 교회의 사명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임경근 목사(다우리교회)가 'ICRC의 역사와 의의'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정찬도 목사(주나움교회)는 'ICRC는 무엇을 고민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경근牧사는 국제개혁신교교회협의회(International Conference of Reformed Churches, 이하 ICRC)가 1982년 네덜란드 흐로닝언(Groningen)에서 창립된 세계 개

혁신교회와 장로교회의 국제 연합 기구라고 설명했다. ICRC는 종교개혁의 신학적 유산인 세 개의 일치신조, 즉 벨직 신앙고백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경을 비롯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고백하는 교회들이 공동의 신앙고백을 기반으로 형성한 신앙고백적(confessional) 국제교제 기구라고 소개했다.

특히 ICRC는 세계교회협의회(WCC)나 세계개혁신교교회커뮤니온(WCRC)과 같은 광범위한 에큐메니컬 기구와 달리 신앙고백적 일치성을 교제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 2026년 한국에서 열리는 ICRC 대회와 고신교회의 과제

임 목사는 오는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한국에서 두 번째 ICRC 대회가 개최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번 대회의 주최국은 한국 고신교회다.

그는 “그러나 정작 고신교회 내부에서는 국제개혁신교교회협의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제협력기구의 활동이 대체로 총회 차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개교회의 관심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목사는 “이번 ICRC 대회의 한국 개최를 계기로 ICRC의 역사와 의의를 알리고 교회들의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CRC는 1982년 창립 이후 40여 년 동



포항장로교회에서 열린 제18회 개혁정론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ICRC와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주제로 발제를 듣고 있다. ©주최 측 제공

안 세계 개혁교회 교제의 고백적 중심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임 목사는 ICRC의 역사적 의미를 신학적 정체성의 보존, 협의회적 교제 모델의 정립, 고백적 일치의 실천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그는 “먼저 신학적 정체성의 보존과 관련해 ICRC는 RES가 걸어간 길에 대한 인식적인 대안으로 출발했다”며 “고백적 기구가 자신의 현장을 지키지 못하고 해체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벨직 신앙고백, 도르트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연합의 기초로 삼았다”고 했다.

또한 “1997년 서울 총회의 헌장 개정을 통해 이러한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함으로써 ICRC는 신앙고백적 기준이 희석되어 가던 20세기 후반의 에큐메니컬 지형 속에서 종교개혁의 유산에 충실한 국

제적인 교제와 연합의 공간을 만들어 왔다”고 덧붙였다.

◆ 총회 아닌 ‘협의회’로서 상호 교제와 신앙고백적 일치 추구

임 목사는 ICRC가 협의회적 교제 모델을 정립했다는 점도 역사적 의미로 제시했다.

그는 “ICRC는 의도적으로 총회(Synod)가 아닌 협의회(Conference)를 자처하며, 협의회에서 이뤄지는 결정 역시 권고적 성격을 가진다”며 “1993년 신학확언위원회 보고서가 공식화한 내용에 따르면 회원권은 회원 교회들이 서로를 참 교회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각 교회의 자매 관계에 관한 결정권 자체를 침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회원 교회들이 보다 깊은 교제를 추구하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교회 위에 군림하는 상급 기구도 아니며, 교회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단순한 친목단체도 아닌 제3의 길을 지향하는 모델로 설명됐다”고 덧붙였다.

임 목사는 “이를 신앙고백적 일치 위에서 서로를 참 교회로 인정하고 교제하는 교회들의 연합이라는 개혁주의적 에큐메니즘의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백적 일치에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사례가 제시됐다”며 “ICRC는 창설을 주도했던 Gkv가 여성 안수를 결정했을 때 신앙고백적 원칙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ICRC는 2017년 Gkv의 회원권을 정지하고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후 2022년에는 회원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RES가 GKN을 대상으로 하지 못했던 일을 ICRC가 자신을 창설한 교회 가운데 하나를 대상으로 실행했다”고 했다.

또 “이를 통해 ICRC는 교회 간 교제가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이뤄지는 연합이라는 점을 말미 아닌 실천으로 증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이 과정에는 개혁신앙



임경근 목사(다우리교회)가 31일 포항장로교회에서 열린 제18회 개혁정론 포럼에서 'ICRC의 역사와 의의'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의 본산이 스스로 세운 국제기구에서 제명되는 역사적 아픔도 함께 담겨 있다”며 “이 사례가 어떤 교회도 자신의 과거와 전통에 안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회원 교회들에게 보여주는 동시에, 최대 교단으로서 2026년 서울 총회를 준비하는 고신교회에도 중요한 경고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 신학교육 디아코니아·선교·여성 직분 등 ICRC의 주요 논의

정찬도 목사는 “ICRC는 무엇을 고민하는가?”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ICRC가 현재 다루고 있는 논의들을 소개했다.

정 목사는 “ICRC가 단순히 세계 개혁교회들의 친교와 교류를 위한 모임을 넘어 성경과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을 바탕으로 오늘의 교회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ICRC의 논의는 교회의 신학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해 그 신앙이 교회의 직분과 제도, 교육과 사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살피는 데까지 이어진다”고 했다.

정 목사는 최근 ICRC의 논의 가운데 주목할 만한 주제로 신학교육위원회(Theological Education Committee), 디아코니아 위원회(Diakonia Committee), 선교위원회(Mission Committee), 여성의 직분에 관한 논의를 들었다.

그는 “이를 주제는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개혁교회가 성경과 신앙고백에 충실하면서도 오늘의 현실 속에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된다”고 했다.

또한 “ICRC가 논의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적 정체성을 오늘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존하고 구현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정 목사는 “신학위원회가 교회의 신학적 토대를 점검하고 미래의 목회와 신학교육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면, 집사위



정찬도 목사(주나움교회)가 제18회 개혁정론 포럼에서 'ICRC는 무엇을 고민하는가?'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원회는 그 신앙이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다룬다”고 했다.

이어 “여성의 직분에 관한 논의는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질서, 직분에 대한 개혁교회의 이해가 오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했다.

◆ “무엇을 믿는가”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연결하는 논의

정 목사는 “ICRC에서 다루지는 다양한 논의를 특정 현안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논의들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질문과 ‘그 믿음대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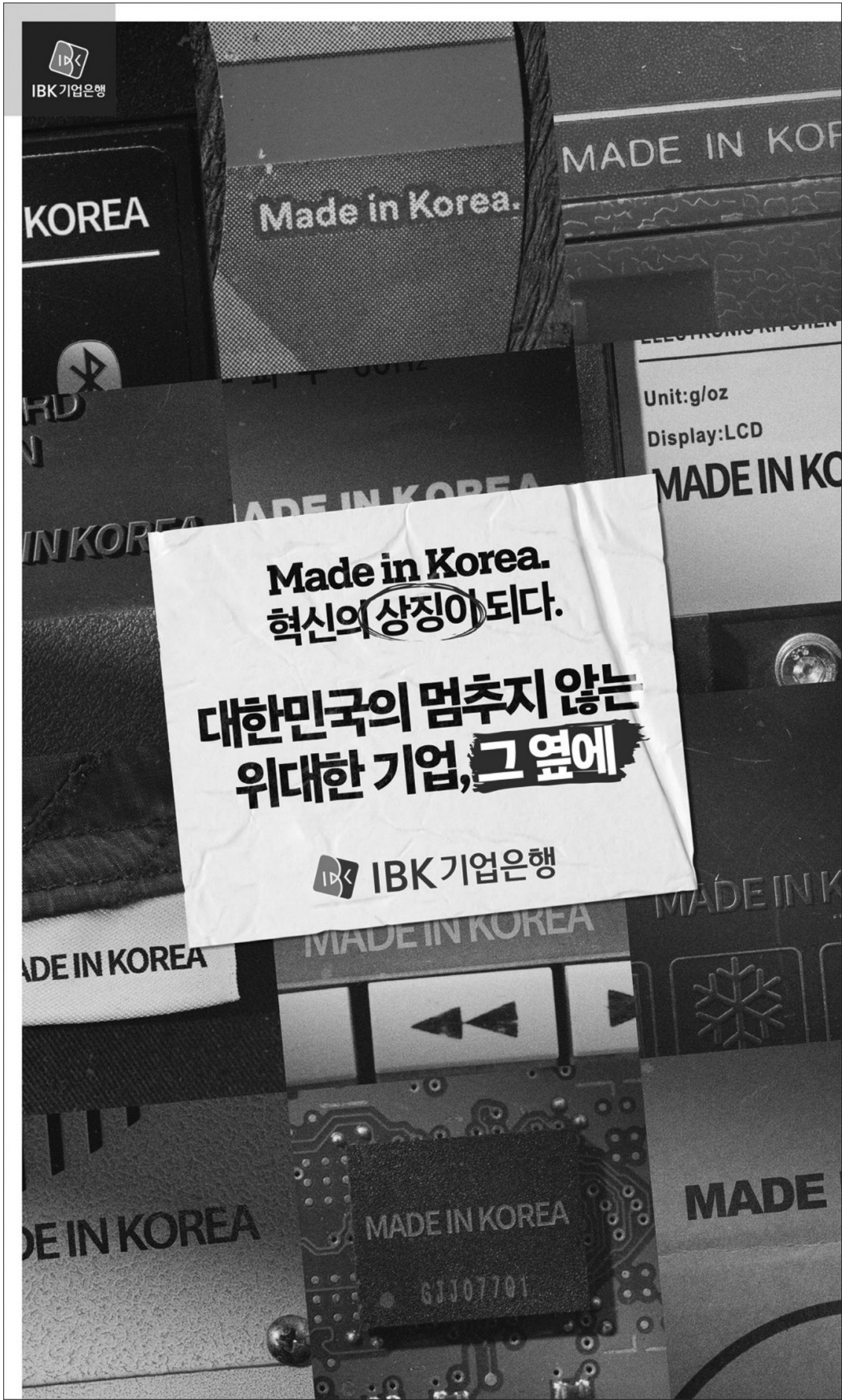
아울러 “신학과 교회의 실천, 직분과 사역에 관한 논의가 서로 연결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라며 “결국 ICRC가 지향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혁교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신앙고백이라는 공통의 토대 위에서 그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것을 오늘의 교회와 세계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임경근 목사는 ICRC 앞에 남아 있는 과제로 장로교 전통과 대륙 개혁교회 전통 사이에 존재하는 예배와 직제에 대한 이해의 차이, 남반구 교회들의 성장에 따른 국제적 균형의 변화, 세계 선교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과제들이 ICRC가 과거의 신학적 유산을 보존하는 데만 머무는 기구가 아니라, 현재도 계속해서 신학적 논의를 이어가는 살아 있는 공동체라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임 목사는 “고백적 개혁신학에 헌신하는 교회들의 국제적 연대로서 ICRC가 종교개혁의 유산이 21세기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구라고 평가하면서, ICRC의 존재와 사역이 앞으로 나아갈 다음 장이 2026년 서울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요한 기자



총신대, 성경적 가치 기반

‘생성형 AI 활용·윤리교육’ 모델 구축 나선다

AI 윤리가이드라인·통합 플랫폼·학생 교육 연계

총신대학교가 생성형 AI의 대학 교육 현장 확산에 대응해 성경적 가치에 기반한 AI 활용원칙을 실제 플랫폼과 교육에 연계하고, 기독교 대학에 적합한 생성형 AI 활용·윤리교육 모델 구축에 나선다.

총신대학교는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기술적 능력뿐 아니라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윤리적 역량까지 갖춘 수 있도록 AI 윤리가이드라인과 생성형 AI 통합 플랫폼, 학생 활용교육을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총신대학교가 대학혁신지원사업 연구과제로 추진한 ‘교육 현장 적용 AI 윤리 모델 연구’를 토대로 마련됐다. 대학은 연구를 통해 국내외 AI 윤리 기준과 대학들의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대학의 교육이념과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을 반영한 AI 윤리원칙을 도출했다.

연구진은 AI 활용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원칙으로 책임성·신뢰성·편향성·악용 가능성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총신대학교는 연구 결과를 실제 수업과 과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생용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으로 구체화했다.

학생용 가이드라인에서는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최종적인 책임 주체라는 점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AI를 사용했는지 여부와 사용 범위를 공개하고, AI가 생성한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과 교차검증을 거치도록 안내받는다.

또한 AI가 제공하는 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문화적·신학적·학문적 편향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대리작성이나 표절, 개인정보 유출 등 생성형 AI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특히 총신대학교는 생성형 AI를 진리나 권위의 근거로 받아들이기보다 학습을 지원하는 보조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AI를 통해 얻은 결과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자신의 사고와 언어를 바탕으로 내용을

재구성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신대학교는 이 같은 윤리원칙을 선연적인 지침에 머물게 하지 않고 실제 교육환경에 적용할 계획이다.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생성형 AI 통합 플랫폼을 시범 운영하며, 플랫폼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AI 활용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LMS를 통한 온라인 교육에서는 효율적인 프롬프트 작성법과 AI 모델 선택방법을 비롯해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검증 방법,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 과제 수행 과정에서 허용되는 AI 활용 범위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총신대학교는 생성형 AI 활용 능력을 단순히 기술 습득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학습 과정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검증하며 책임 있게 사용할 것인지까지 교육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박성규 총신대학교 총장은 생성형 AI 시대의 대학 교육에서 기술 도입 자체보다 학생들의 판단력과 책임의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요한 기자

예상고신, 제76회기 선출직 입후보자 1차 소견발표회 마쳐

오는 9월 15일 개회를 앞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예장고신) 제76회 총회를 앞두고, 교단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예장고신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 102호에서 제76회기 선출직 입후보자 1차 소견발표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부총회장 후보였던 김문훈 목사가 최근 막말 논란으로 사퇴하면서 새롭게 부각된 총회장 및 부총회장 후보들의 행보에 교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린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는, 총회장과 부총회장을 비롯해 임원, 유지재단 이사, 학교법인 이사 등 총 15명의 선출직 후보들이 참석해 교단을 향한 비전과 정책을 소상히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박해형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발표회에서 선관위 김광수 위원장은 취지 설명을 통해 후보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적극 활용해 자신의 정책과 생각을 총대들에게 충분히 알릴 것을 당부했다. 특히 주요 임원 후보들에게는 단순한 소견 발표 외에도 교단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응답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후보자들은 선관위가 사전에 제시한 문항 중 한 가지를 현장에서 직접 선택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소신을 피력했다.

단독 출마한 총회장 후보 이규현 목사(인천 신정교회)는 ‘다시 코람데오’를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고신의 정체성과 신앙적 전통 회복을 강력히 역설했다. 이목사는 자신의 신앙과 목회의 뿌리가 고신에 있음을 강조하며, 총회가 직면한 어려

움 속에서 교단을 섬기기로 결단했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총회장으로 섬기게 될 경우 실천할 세 가지 축으로 첫째, 성경과 헌법 준수를 통한 바른 총회 인도, 둘째, 선배와 후배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교단 형성, 셋째, 전도와 선교, SFC와 다음 세대를 중심에 둔 미래 준비를 꼽았다. 교단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은급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바탕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주장하기보다는 듣고, 군림하기보다는 섬기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며 법 앞에는 엄격하되 사람을 향해서는 따뜻한 리더십을 다짐했다. 이 목사를 위한 지지 연설에는 허성동 목사(제일문장교회 은퇴)가 나서 총대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목사부총회장 단독 후보로 나



이규현 목사(왼쪽)와 김은태 목사(오른쪽) ©기독교일보DB

선 김은태 목사(부산서부 은혜로교회는) “다음 세대가 자랑스러워하는 고신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선배들의 신앙 유산을 계승하고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목사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고신 어머니 기도운동’을 통한 기도 확산과 차세대 목회자·평신도 지도자

발굴을 제시했다. 또한 총회 산하 기관에 전문성과 소명을 갖춘 인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만들고, 개혁주의 신학을 토대로 한 ‘글로벌 고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은급 문제에 대해서는 은퇴 목회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단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미래 과제로 규정하고, 필요시 별도 기구 신설 및 전문가 연구를 통한 장기적 자산 운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목사 측 지지 연설은 노정각 목사(은전교회)가 맡았다.

장로부총회장 후보들의 소견 발표와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기호 1번 김정수 장로(경북중부 압량중앙교회)는 다수의 출마 경험을 바탕으로 당선될 경우 더욱 낮은 자세로 총회장과 부총회장, 임원진을 보필하며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기호 2번 이연호 장로(경남 창원 가음정교회)는 고신의 확고한 신학적 정체성을 언급하면서도, 향후 10년과 2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와 전략 수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동역자들의 지혜를 모아 교단의 재정적 토대를 다지겠다고 역설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단독 출마한 후보들이라 하더라도 총대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 최종 당선된다는 점을 거듭 상기시키며, 후보들과 총대 모두가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 과정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예장고신 총회 선관위는 1차 발표회와 2차 소견발표회를 진행했으며, 오는 27일 오후 2시 경남 김해 동서남북교회에서 마지막 3차 소견발표회를 갖고 선거 열거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형구 기자

“차별금지법 등 발의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부적합”

바른인권여성연합·자녀교육권부모연합 등 시민단체들 지명 철회 촉구

시민단체들이 8월 31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에 대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바른인권여성연합·자녀

교육권부모연합(PACER), 태아·여성보호 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 등 28개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인선을 “극단적 이념 편향과 젠더 갈등의 당사자들 전면에 배치한 인사 참사”라고 규정하며,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오만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주요 반대 사유로는 용 의원이 △전통적 가족 가치를 해치는 생활동반자법 발

의 △“표현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금지법 추진” △“생명권 및 무죄추정 원칙을 훼손하는 입법 활동” △“군 기강을 해치는 군행법 개정 시도”를 들었다.

이들은 용 후보자가 대표발의한 ‘생활동반자법’이 전통적 혼인가족 제도를 해체하고 사실상 동성혼 합법화로 가는 우

회로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동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종교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용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만삭·약물 낙태를 허용”해 생명권을 침해하고, 비동의 간음죄 추진은 무죄추정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이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한 군행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것에 대해선 “군 기강과 안보 역량을 해칠 위험한 입법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용 내정자가 “합람 미달·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밝힌 단체들은 이번 인선이 “2030 세대의 분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며, “인선 강행 시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영 기자

구세군, 故 김민제 사관 3주기 추도예배 개최

구세군(사령관 김병윤)은 지난 30일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에서 故 김민제 사관의 3주기 추도예배와 추도회고록 「김민제의 길(Paul Kim Drive)」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인의 생애와 사역을 기리고, 그가 걸어온 85년의 신앙과 섬김의 여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제의 길」은 김민제 사관이 남긴 사역 노트와 자료를 바탕으로 아내 손연숙 사관과 편찬위원회가 1인칭 시점으로 재구성하여 엮은 추도회고록이다. 어린 시절과 한국전쟁의 고난을 겪은 소년기부터 구세군 영동병원에서의 의료선교 사역, 구세군 사관으로서의 소명, 미주 한인 영문 개척, 서울 올림픽 기독교관 채플린 활동, 귀국 후 사관학교 교장 및 본영 서기장관 역임, 은퇴 후 유학생 및 자립청년 섬김에 이르기까지 고인의 생애를 10개의 여정으로 담아냈다.

김민제 사관은 1971년 구세군 사관으로 임관한 뒤 국내외에서 헌신했으며, 1980년 미국으로 건너가 미주 최초 한인 구세군 교회인 나섬(LA)한인영문을 개척했다. 이후 시카고 한인영문과 디트로이트한인영문 개척 등 미주선교의 일선에



기념촬영에 임한 참석자들의 모습. ©구세군

서 주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1997년 귀국 후 후학 양성과 교단 행정에 기여했고, 2004년 은퇴 후에도 인하대 유학생 섬김(IOS)과 푸른초장교회 사역을 이어가다 2023년 11월 6일 향년 85세로 소천했다. 이날 추도예배에서는 김병윤 사령관이 말씀을 전했으며, 한정호 목사(감리교 경기연회 전 감독)와 김필수 전 구세군 사령관이 추모사를 통해 고인의 삶을 기렸다. 이어진 출판기념회에서는 「김민제의 길」을 소개하고 전광표 전 사령관의 축사, 가족 대표 손연숙 사관의 인사와 헌정 및 증정식 등이 진행됐다.

구세군 관계자는 “김민제 사관은 화려한 직함보다는 조용한 실천과 인격으로 평생 가장 낮은 곳을 섬기셨던 진정한 하



생전의 김민제 사관. ©구세군

나님의 사람이었다”며 “이번 추도회고록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신앙의 이정표와 깊은 울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노형구 기자



당신 곁에서 새 삶 바라봅니다

사회와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다시 바라봅니다
그 소중한 일상이 지속가능해지는 새 삶이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늘 당신 곁에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새 삶을 만들어갑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 2027 대성회 제12차 정책회의 개최

교단 총회 참여·MOU·조직위원회 출범 등 논의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최근 김포 두란노교회(담임 이상문 목사)에서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 준비위원회 제12차 정책회의’를 열고 각 교단 총회의 대성회 참여와 교계단체와의 MOU 추진, 조직위원회 출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1부 예배에서는 상임준비위원장 신석목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준비위원장 김우경 목사가 기도했다. 대표회장 이상문 목사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사무엘상 3:1~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2부 정책회의에서는 9월 주요 교단 총회를 앞두고 각 교단의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 청원 및 결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교단 및 교계단체와의 MOU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태희 목사는 9월 14~17일 예정

된 예상통합과 예상합동 총회 등 주요 교단 총회에 참석해 대성회의 취지와 비전을 알리고 참여를 요청할 계획을 밝혔다.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 조직위원회’ 출범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준비위원회는 대성회를 특정 교단이나 단체의 행사가 아닌 범교단적 민족복음화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준비조직과 전국 시도 및 지역본부를 연결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별 준비 상황도 공유됐다. 광주·전남 대표회장 맹연환 목사는 오는 11월 1일 광주 금남로에서 10만 명 규모의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대표 진등용 목사도 충남지역 교회들과 2027 대성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교단과 교파를 넘어 민족복음화운동에 참여하겠다는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뜻을 전했다.

향후 일정으로는 9월 9일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부흥목회연구원 제51기 가을학기 개강, 9월 15일 인천자유공원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 9월 20일 대구 서부교회 대구광역시 발전식 및 대표본부장·임원 취임식 등이 예정돼 있다. 10월 12~16일에는 오산리기도원에서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 오산리기도원 성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남가주교협, ‘교회 회복과 선교 위한 8월연합기도성회’ 개최

피종진 목사 설교 “성령 역사의 주역이 된 사람들”

제56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은목목사)가 지난 8월 30일 ‘교회 회복과 선교를 위한 연합기도성회’를 개최하고, 남가주 교계의 연합과 교회 회복, 선교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이날 성회는 남가주 지역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회개와 성령의 역사’가 교회 부흥의 진정한 출발점임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예배는 최훈 목사(교협 총무)의 인도로 시작돼 조준석 목사(음악위원장)의 찬양, 이종희 목사(부회장)의 대표기도, 한경현 장로(남가주장협 회장)의 성경봉독 순으로 진행됐다.

설교를 맡은 피종진牧사는 ‘성령 역사의 주역이 된 사람들’(행 1:10-1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초대교회처럼 오늘의 교회 역시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비로소 복음 전파와 선교의



행사를 마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진 합심기도에서는 교협 수석부회장 김대준 목사가 사회를 맡았다. 참석

자들은 먼저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이 세대와 대한민국, 미국을



행사 현장의 모습.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이 기도는 교협 중보기도위원장 양명숙 목사가 인도했다. 두 번째 기도 시간에는 개교회와 교계

의 연합, 교회의 사역을 위해, 또 가정과 다음세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기도했으며, 교협 선교위원장 최수일 목사가 기도를 인도했다.

참석자들은 교회의 부흥이 프로그램이나 외형적인 성장에 앞서 회개와 기도, 성령의 역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남가주 교회들이 교단과 교파를 넘어 복음 안에서 더욱 연합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 피종진 목사의 축도로 은혜 가운데 마무리됐다.

조셉 리 기자

시애틀 하나교회, 노진준 목사 초청 ‘성전 이전 및 창립기념 감사 부흥회’ 개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교회의 새로운 도약과 사명 다짐



시애틀 하나교회(담임 상그로시 목사, 전임 이일표 목사)가 성전 이전과 교회 창립 8주년을 기념해 오는 9월 11일(금)부터 13일(주일)까지 순회설교가 노진준 목사를 감사로 감사 부흥회를 개최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부흥회는 새롭게 이전한 예배당에서 지나온 교회의 발걸음을 돌아보고, 말에 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과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흥회는 9월 11일(금) 오후 7시 첫 집

회를 시작으로, 12일(토)에는 오전 6시와 오후 7시 두 차례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13일(주일)에는 오전 10시 1부 예배와 오후 12시 영아예배로 진행된다. 강사로 나서는 노진준 목사는 복음의 본질을 선명하게 전하는 설교와 깊이 있는 성경 해석으로 잘 알려진 설교자다. 신앙의 외형이나 관습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이 성도의 삶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며, 미주와 한국의 여러 교회와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노진준 목사는 토슨대학교(Towson University) 수학과를 졸업하고 웨스트

민스터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목회학 석사(M.Div.) 학위를 받았으며, 변증학 박사 과정을 이수했다. 볼티모어 갈보리장로교회와 LA 한길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섬겼으며, 현재 프리칭 코칭 미니스트리스(Preaching Coaching Ministries-PCM)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읽는 설교 요한복음」 12, 「믿음을 의심하다」, 「노진준 목사의 다나엘서」, 「회복하라」 등이 있으며, 「성경 이미지 사전」과 「개학주의 은혜론」 등 다수의 역서도 펴냈다. 시애틀 하나교회 새 성전 주소는 830 SE Everett Mall Way, Suite 200, Everett, WA 98208이다. 김민선 기자

LA 베이직 감리교회 이전 감사예배 9월 13일

LA 베이직 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 이선기 목사)가 오는 9월 13일(일) 오후 4시 새 예배당에서 이전 감사예배를 드린다.



새 예배당은 로스앤젤레스 웨스트 올림픽 블러바드 3400번지(34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에 위치해 있다. LA연합감리교회와 원서연합감리교



LA 베이직 감리교회 예배 현장의 모습. ©교회 측 제공

회 소속이었던 한인 성도들이 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 교단의 반성경적 정책, 동성애 합법화 흐름에

반대하여 이선기 목사를 초대 담임목사로 청빙하여 이 교회를 개척했다. 김민선 기자

그랜드 캐니언 홍수...2명 사망·15명 실종

60여 명 헬기로 구조...인도교·수도관 파손
팬텀 랜치·노스 카이밥 등 주요 구간 폐쇄

미국을 대표하는 국립공원인 그랜드 캐니언에서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지고 약 15명이 실종되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1일 CBS뉴스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의 브라이트 에인절 캐니언과 팬텀 랜치 일대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다. 현장에 고립됐던 등산객과 야영객 60여 명은 헬기를 통해 구조됐다.

미 국립공원관리청은 애리조나주 공공안전부 등과 함께 실종자 수색과 추가 대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국은 사고 당시 브라이트 에인절 크릭 일대에서 하이킹이나 야영을 했던 방문객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브라이트 에인절 크릭 일대에는 약 1시간 동안 0.5~1인치(12.7~25.4mm)의 강한 비가 내렸다. 빗물이 가파른 암석 지대를 따라 빠르게 흘러내리면서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하이킹 중이었던 데이비드 그레고리는 “계곡물이 흙탕물로 변한 뒤 점점 거세게 흐르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그는 공원 관리요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방문객들과 함께 높은 지대로 대피한 뒤 헬기로 구조됐다.

야영객 에리카 비올라도 계곡물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숙소 건물과 각종 시설물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비올라와 다른 야영객들은 긴급

대피 지시에 따라 현장을 벗어난 뒤 헬기를 타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

빠르고 강한 몰살로 브라이트 에인절 크릭을 가로지르던 인도교 대부분이 파괴됐다. 계곡 폭이 넓어지는 등 주변 지형이 달라졌으며, 콜로라도강 일대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원 관 광객과 주민에게 물을 공급하는 수도관도 크게 파손됐다.

국립공원 측은 팬텀 랜치와 브라이트 에인절 캠핑장, 노스 카이밥 등산로를 폐쇄했다. 콜로라도강을 가로지르는 블랙 브리지와 실버 브리지의 통행도 중단했으며, 피해 지역의 재개방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에는 추가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남아 있어 수색과 구조 작업에도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방문객들에게 피해 지역에 접근하지 말고 기상 상황과 공원 측 안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은혜 기자

C채널 ‘성지가 좋다’ 진행자 이강근 박사 초청 남가주 집회 및 성지순례 설명회 열린다

9월 11일(금) 미주 평안교회서 성지순례 설명회 및 Q&A...
주님세운교회, 남가주 기쁨의 교회서 일일 부흥회도 이어져

C채널 기독교방송의 인기 프로그램 ‘성지가 좋다’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이강근 박사 초청 남가주 집회 및 애청자와의 만남이 오는 9월 11일(금)과 12일(토) 양일간 다채롭게 개최된다.

먼저 9월 11일(금) 오전 11시에는 미주 평안교회에서 이강근 박사님과 애청자의



만남 - 성지순례 설명회 및 Q&A 행사가 마련된다. 이번 설명회는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사우스베이목사회, 미주 평안교회, 토렌스 주님세운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성지순례에 관심 있는 성도들에게 현장의 생생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같은 날 저녁부터는 지역 교회들을 순회하며 일일 부흥회 성격의 애청자 초청

집회가 이어진다. 11일(금) 오후 7시 30분에는 토렌스 주님세운교회에서 열리는 ‘금요성령찬양예배’에서, 다음 날인 12일(토) 오전 6시 20분에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 ‘토요새벽부흥회’에서 각각 이 박사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

강사로 나서는 이강근 박사는 이스라엘 히브리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예루살렘 유대학연구소장 및 레반트지역(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5개국 한인 총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중동 지역 및 성지순례 최고 전문가다. 김민선 기자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심장

탄소중립 선도 도시

보령

- 탄소중립 에너지 기회발전 특구 선정
- 지방소멸기금 투자 우수지역 선정

네팔 대홍수로 교회도 무너져... 국제 기독 단체들 긴급구호 나서

라수와·누와코트 일대 교회 성도 다수 실종돼

힌두 민족주의 박해 속 재난 직면, 기독교 신앙 공동체 흔들려
생활 터전 상실해 구호 절실, “희망과 영적 회복 위해 기도”

지난달 26일 네팔과 티베트 국경 지역을 덮친 대홍수로 현지 교회들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기독교연대(ICC), 영국오픈도어, 미션네트워크뉴스(MNN) 등 국제 기독 단체들은 현지 상황을 전하며, 피해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구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번 참사는 26일 아침, 티베트 히말라야 산맥에서 대규모 빙하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했다. 무너진 얼음과 바위는 아래쪽 렌데강을 막아 댐을 형성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대로 붕괴됐다. 이로 인해 발생한 급류가 티베트 지역은 물론 국경을 넘어 네팔 라수와 지구와 하류 지역까지 순식간에 덮쳤다. 이 사고로 1일 현재 사망자 수가 900명, 실종자가 4,700명을 넘었으며, 피해 규모는 계속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재해로 수력발전소 7곳 이상이 파손돼 피해 지역 상당수가 전력 공급이 끊겼고, 통신망과 도로까지 차단되면서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에는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피해 지역 일대 교회의 목회자 포함 성도 다수 실종

네팔 홍수는 지역 교회 공동체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다. 현지에서 활동하

는 ICC 직원은 “교회 건물들이 급류에 휩쓸려 가거나 부분적으로 파손됐으며, 목사를 포함한 수많은 기독교인이 실종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저희 ICC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피해 가정에 긴급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네팔기독교교회연합(NCCUK) 역시 최근 라수와와 누와코트 지역 교회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누와코트의 나우 조티 침례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 건물이 파손됐고,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더 많은 인원이 여전히 실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오픈도어가 전한 현지 소식에 따르면,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트리솔리에서는 교회 소속 7가구가 홍수 피해를 보았다. 또 라수와 지구에 있는 5개 교회에서 교인 17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했다. 강변에 거주하던 가정들 가운데 수력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교인 20~25명도 소식이 끊긴 상태다.

◇“직업과 생계까지 잃어”... 신앙 공동체 기반 흔들

이번 재난은 단순한 인명재산 피해를 넘어, 현지 신앙 공동체의 기반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홍수로



지난 26일 네팔 대홍수로 발생한 급류에 폐허가 된 강 인근 마을 ©ICC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사람들 외에도, 삶의 터전과 생계 수단을 잃은 성도들의 이야기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는 “사상자와 인명 피해 외에도 홍수로 마을들이 휩쓸려 가고 여러 도로와 수력발전 시설이 파괴되었다”며 “많은 가족이 집을 잃고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할 수 없게 만든 심각한 재난”이라며 긴급 기도를 요청했다.

피해 지역의 교회 담임목사는 교인 중 상당수가 일용직 노동에 생계를 의존했는데, 이번 재해로 일자리나 수입원을 잃은 교인들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 수력 발전 프로젝트, 터널 건설, 하천 정비 작업, 국경 관련 사업 등에 종사하던 성도들이 홍수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국제 선교단체, 네팔 홍수 피해 지역

긴급 구호 나서

미션네트워크뉴스(MNN)에 따르면 현지에서 활동하는 선교단체 A3는 네팔 홍수 피해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3 소속 치트리리는 “A3 네트워크에 속한 교회 11곳이 홍수 피해를 당했다”며 “그중 한 교회는 재난 지역의 중심부에 있었는데, 담임 목사만이 유일한 생존자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치트리리는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재난 지역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다”며 “특히 여성과 어린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3는 과거 네팔 대지진 때도 생존자들을 도운 이력이 있다. 당시 이들의 봉사를

했느냐고 했다는 것인이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조용필은 피우던 담배를 툇 끄더니 매니저에게 병원으로 가자고 했다. 그날 행사가 4개였는데 모두 취소하고 위약금 물어주고 시골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했던 겁니다.

조용필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연 속의 소녀를 찾았습니다. 소녀는 아무 표정도 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자 평평 울었습니다. 부모도 모인 이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조용필은 소녀를 꼭 안아준 후 사인한 앨범을 주면서 차에 올랐습니다. 그때 아이의 엄마가 물었습니다. ‘돈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얼마입니까?’ 그러자 조용필이 말했습니다. ‘파님의 눈물이 제가 지금껏 벌었던 돈보다 더 값집니다.’

공감은 삶의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공감을 살리고 세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나는 공감의 사람입니까?

배성태 명성교회 원로목사·우모하 대표

기고

왜 우린 공감을 잘 못 하는 걸까?

유희기 18장 1~12절 중에서

공감은 삶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상대의 입장과 처지에서 그를 생각하고 그가 처한 상황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를 말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공감을 잘 못 합니다. 옳고 그름의 틀에 갇혀 판단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공감하는 것에는 아주 서툴습니다.

유희기에는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4~37장).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던 욥이 환난을 당했다는 소식에 친구들이 급히 찾아왔다가 너무도 기막힌 모습에 말문이 막혀 일주일의 가슴



배성태 목사

치며 같이 울었습니다. 그러자 욥이 마음에 있는 얘기를 쏟아냈는데, 그때 친구들은 돌변하여 욥을 비난하여 충고했습니다. 2차 가해였습니다. 18장에서는 욥을 아예 악인이라고 규정하고는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탄식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이리 고통스러운고’ 혹은 이런 일로 가해하거나 피해를 당한 적은 없습니까? 왜 사람들은 공감을 잘 못 하는 걸까요?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감보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해 말해주고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는 일종의 책임감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돌려드립니다.’

공감을 주제로 쓴 「당신이 옳다」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약보다, 그 어떤 치료보다 중요한 것이 공감이라

고 했습니다. 공감의 핵심은 ‘당신이 옳다’, ‘네가 그럴 때는 분명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라고 말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비로소 ‘내 편이 있구나’는 생각을 하며 심리적 안정을 찾고, 자기를 수용하게 되면서 스스로 상처를 극복해 간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공감을 심리적 심폐소생술이라고 했습니다.

1982년 조용필 씨가 4집 발매 후 한창 바쁠 때 어느 요양병원 원장으로부터 매니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 14세 된 장애 여자아이가 있는데, 4집에 수록된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더니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입원 8년 만에 처음 감정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이 소녀의 보호자 측에서 돈은 원하는 만큼 줄 테니 이곳에 와서 우리 아이 앞에서 이 노래를 불러줄 수 없

‘글로벌 AI 미션 포럼 2026’ 개최

FMnC 디지털선교연구소,

10월 1일 온라인 줌 진행



신학과 선교’ △말씀과 진리를 섬기는 AI △AI로 선교를 읽고, 연결하고, 만들다, 미국 시간으로 오후 5시

FMnC(기술과학전문인선교회) 디지털선교연구소가 오는 10월 1일 ‘글로벌 AI 미션 포럼 2026(Global AI Mission Forum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언어로, 하나의 선교를(EVERY PERSON · EVERY LANGUAGE · ONE MISSION)’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포럼은 AI 기술을 소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제 세계선교 현장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AI 적용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포럼은 한국 세션과 미주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한국 세션은 △AI 시대의

행사를 주관한 FMnC 디지털선교연구소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고, AI로 미전도종족을 연구하며, 난민과 디아스포라를 섬기고, 세계의 교회와 선교사들이 자신의 언어로 서로 연결되는 시대를 맞아 이 포럼이 세계선교의 새로운 문을 제시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법정 의무 교육, 브릿지온이 여러분의 일터로 찾아갑니다!

브릿지온(Bridge On)은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밀알복지재단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예술단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로 찾아가 웃음과 감동이 넘치는 공연과 전시를 전해드립니다.

문의 | 밀알복지재단 밀알문화예술센터

메일 | art@miral.org

전화 | 02-6411-3649

홈페이지 | 밀알문화예술센터.kr



자세히보기



밀알복지재단은 1993년 설립되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생애주기별 전문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 11개국에서 아동보육, 보건 의료, 긴급구호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밀알복지재단은 ‘UN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협의적지위를 부여받아 종교, 국적, 인종,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활동합니다.

수단 누바산맥서 교회 지도자 잇단 피살·납치...기독교인들 안전 우려

수단 남코르도판주 누바산맥에서 무장세력 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교회 지도자와 기독교인들을 겨냥한 살해와 납치,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최근 몇 주 사이 교회 지도자 최소 2명이 숨지고 2명이 납치됐다가 풀려났으며, 교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공격 과정에서 수십 명의 기독교인이 납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Open Doors)는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간) 이 같은 상황을 전하며 기독교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7월 24일에는 수단 성공회 소속 아넬 이드리스 종골 목사가 헤이반 지역 다비 일대에서 무장세력의 공격을 받아 총상을 입고 며칠 뒤 숨졌다.

교회 관계자들은 이번 공격의 배후로 수단인민해방운동-북부(SPLA-N)에서

이탈한 한 분파를 지목했다. 무장세력은 부족 간 갈등과 종교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교회 지도자와 민간인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격 하루 전인 23일에도 같은 지역에서 민간인 6명이 살해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단 성공회 헤이반교구는 종골 목사의 피살을 확인하고 무장세력의 공격을 규탄했다. 알시르 하산 쿠루 주교는 SPLA-N과 이탈 세력 간 분쟁에 연루된 모든 무장단체에 교회 지도자와 종교기관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쿠루 주교는 “SPLA-N과 이탈 세력 간 분쟁에 연루된 모든 당사자가 교회 지도자와 종교기관을 존중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납치도 잇따랐다.

수단 그리스도교회 소속 아랍 이브라힘 티아 목사는 7월 23일 헤이반의 자택

에서 두 아들과 15세 조카, 가톨릭 사제 파디 이브라힘 티아의 형제인 다나엘 이브라힘 티아와 함께 납치됐다. 이들은 7월 28일 석방됐다.

이어 또 다른 교회 지도자인 자카리아 술리만 자나는 7월 31일 납치됐다가 다음 날인 8월 1일 풀려났다. 두 사람은 헤이반 지역 수단 그리스도교회 공동체의 주요 지도자로 알려졌다.

교회 지도자들의 납치가 종골 목사의 피살 직후 잇따르면서 현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무장세력이 교회 지도자들을 집중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누바산맥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태는 2023년 4월 시작된 수단 내전이라는 더 큰 분쟁의 일부다. 수단군(SAF)과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RSF)의 충돌로 시작된 내전은 전국적으로 대규모 사망자와 피란민을 발생시켰다.



©ChatGPT

누바산맥은 내전 초기에는 주요 전선에서 비교적 벗어나 있었지만, SPLA-N이 분쟁에 개입하고 내부에서 경쟁 세력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이 과정에서 무장세력 간 충돌이 증가하면서 민간인 사망과 강제이주로 이어지고 있다.

SPLA-N은 오랫동안 남코르도판주에서 활동하며 수단 정부군과 충돌해 왔다. 현재 내전에 SPLA-N이 개입하면서 기존의 부족·정치적 갈등에 새로운 무력 충돌이 더해졌다는 분석이다.

오픈도어는 최근 공격의 동기를 단순

히 종교적 박해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금을 비롯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부족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민병대 활동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기독교 지도자와 신자들이 신앙을 이유로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도어는 지난 12일 최근 공격으로 교회 지도자 2명과 다른 민간인 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누바산맥의 두 교구를 섬기는 성공회 신학교도 공격을 받았으며, 예배자 수십 명이 납치됐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32명은 풀려났지만, 여전히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단 전역에서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오픈도어에 따르면 교회 건물이 폭격을 받거나 민병대와 급진주의 단체에 점거되는 사례가 발

생했으며, 기독교인들은 전쟁으로 인한 강제이주와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오픈도어는 2026년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에서 수단을 기독교인 박해가 심각한 국가 4위로 분류했다.

기독교 인구가 상당한 누바산맥은 오랜 기간 무력 충돌과 강제이주, 차별을 겪어온 지역이다. 특히 지리적으로 외진 데다 외부인의 접근이 제한돼 현지에서 발생하는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잇따른 공격으로 수단 교회 지도자와 기독교인들의 안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도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지 교회는 희생자 가족을 위한 위로와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 그리고 무장세력 간 충돌이 종식되고 수단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호소하고 있다.

이미경 기자

美 종교지도자들 “이스라엘, 미국인 13명 입국 거부”... 서안 방문단 논란

미국의 종교 지도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이스라엘 당국이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을 방문하려는 미국 시민 13명의 입국을 거부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의 이스트사이드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입국하려던 미국인 13명이 억류된 뒤 입국을 거부당하고 최대 10년간 이스라엘 재입국이 금지됐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감리교 목회자 4명을 비롯해 개신교와 가톨릭 등 기독교인, 유대교 및 이슬람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이스라엘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미국 시민들은 요르단에서 셰이크 후세인 국경교량을 통해 이스라엘로 입국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안지구의 기독교 마을 타이베(Taybeh)와 동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 지역 등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이번 방문단을 이끈 에드워드 필립스 전 에모리대학교 신학 교수이자 감리교목사는 타이베가 이스라엘군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최근 이스



은퇴한 미국 연합감리교 목사 에드워드 필립스가 지난 8월 24일(현지시간) 애틀랜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YouTube/Eastside Church ATL

엘 정착민들에 의한 공격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타이베 주민들은 지난 1년 동안 정착민들이 마을을 훼손하고 교회에 불을 지르려 했으며, 차량을 불태우고 가족을 끌어올리브 농장을 훼손하거나 농장에 불을 질렀다고 주장해왔다. 이스라엘 당국은 해당 사건들을 규탄했지만 체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필립스 목사는 이번 방문이 동예루살렘에 위치한 사비엘 에큐메니컬 해방신학센터(Sabeel Ecumenical Liberation Theology Center)와의 접촉을 통해 조율됐다고 밝혔다. 사비엘은 팔레스타인 해방신학을 지지하는 단체로, 일각에서는

반유대주의적 표현을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필립스 목사는 사비엘을 “예수와 마틴 루터 킹, 간디의 정신에 따른 비폭력 저항단체”라고 평가했다.

필립스 목사는 입국 과정에서부터 당국의 질문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민 심사대에서 직원이 우리가 서로 어떻게 알게 됐는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전쟁 중에 왜 이곳에 왔는지, 어떤 단체와 관련돼 있는지, 누구를 만날 예정인지 등을 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경 당국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뒤 입국 거부 통보를 받았다”며 문서에는 입국 거부 사유로 ‘불법 이민 방지 고려사항’이라는 문구만 적혀 있었고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필립스 목사에 따르면 방문단은 2시간 넘게 억류된 뒤 여권을 돌려받지 못한 채 터미널을 떠나 버스에 탑승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한 관계자가 자신에게 “당신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라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부당하게 대우받는지 세상에 알리고 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권은 반환됐다.

이스트사이드교회 담임목사 안지 픽 리버스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모든 사람은 선하게 창조됐으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어디에서든 해방과 사랑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미국 조지아주 미국-이슬람관계협의회(CAIR) 조지아 지부의 아즈카 마흐무드 대표는 이스라엘의 입국 거부 조치를 “충격적이고 부당하며 불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마흐무드 대표는 “이번 입국 거부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미 국무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인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실상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고 주장하며 이스라엘의 정책을 ‘아파르트헤이트’에 비유했다.

한편 사비엘 북미지부(Friends of Sabeel North America)는 미국 의회에 이스라엘 정부의 행위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는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청원서는 “신앙과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이 존엄과 공정성, 존중을 바탕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믿는다”며 “국가 간 협정에는 정부 간 책임뿐 아니라 그러한 약속에 따라 권리와 자유가 좌우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독일서 낙태 반대 기도회 마친 기독교인들 공격 시도한 시위대

독일에서 낙태 반대 기도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젊은 기독교인들을 약 200명의 반대 시위대가 공격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2명이 다쳤다고 기독교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감시하는 유럽기독교불관용·차별감시기구(OIDAC Europe)가 밝혔다.

사건은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괴팅겐에서 발생했다. OIDAC 유럽에 따르면 ‘SOS 라이프(SOS Life)’ 캠페인과 ‘성심 사도직(Sacred Heart Apostolate)’에 참여한 약 20명의 젊은 기독교인들은 낙태 반대를 위한 ‘공개 묵주기도(Public Rosary Prayer Against Abortion)’를 마치고 현장을 떠나려던 중 반대 시위대와 마주쳤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연설과 북 연주 등을 진행하며 평화롭게 기도회를 이어갔다. 그러나 약 200명의 친낙태 성향 시위대가 모여들면서 긴장이 고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경찰에 따르면 기도회가 끝난 뒤 반대 시위대가 두 집단을 분리하고 있던 경찰 저지선을 강제로 뚫고 기독교인들에게 접근하려 했다.

OIDAC 유럽은 “경찰이 폭력적인 시위대가 참가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았지만, 진압 과정에서 경찰관 12명이



©OIDAC Europe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부상자들은 자극성 스프레이에 노출됐으며, 현장에는 구급차도 출동했다.

경찰은 이후 기도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이들을 현장에서 호위해 이동시켰다.

OIDAC 유럽은 “반대 시위대가 집단을 분리하고 있던 경찰선을 폭력적으로 돌파하려 했다”며 “경찰은 기도회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출입구와 계단 등을 확보하며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기독교 포럼은 이들 반대 시위대를 ‘좌파 극단주의자들’이라고 규정했다.

OIDAC 유럽은 이번 사건으로 기도회 참가자들이 “비이성적인 증오에 충격을 받았다”며 경찰의 보호를 받아 현장을 떠나야 했다고 전했다.

이미경 기자



의성군

의성

의성에서 만들어갑니다.

의성군

의성

의성에서 만들어갑니다.

美의원 11명, 파키스탄 정부에 ‘납치·강제개종 의혹’ 기독교 여성 보호 촉구

18세 네하 파키르, 실종 뒤
이슬람 개종한 상태로 발견...
강제개종 문제 다시 주목

미국 연방의원 11명이 실종된 뒤 이슬람교로 개종한 상태로 발견된 파키스탄의 18세 기독교 여성 네하 파키르(Neha Faqir)의 신변을 보호하고, 외부의 압력 없이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해달라고 파키스탄 정부에 촉구했다.

크리스천포스트(The Christian Post)가 지난 8월 28일(이하 현지 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의원들은 지난 20일 아잠 나지르 타라르(Azam Nazeer Tarar) 파키스탄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파키르의 실종 이후 진행된 수사와 재판 절차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제기독교연대(Christian Solidarity International-CSI)는 현재 파키르의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파키르는 지난 3월 24일 펀자브주 카수르 지역 코트 라다 키산에 있는 집을 나서 인근 재봉 교육센터로 향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가족을 돕던 변호사가 라호르의 한 이슬람 신학교에서 그의 소재를 확인했으며, 가족은 파키르가 실종된 지 불과 며칠 만에 강제로 이슬람교로 개종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은 파키르가 이전까지 종교를 바꾸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없다며 이번 개종이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가족은 딸의 귀가를 요구하며 법원에 청원했지만, 라호르 고등법원은 지난 6월 9일 이를 기각했다. 당시 파키르는 이슬람 성직자들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으며, 가족은 재판 전이나 재판 과정에서 그와 따로 대화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의원들은 이 같은 정황에 대해 “그가 왜 실종됐는지, 또 자신의 의사를 독립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는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들은 “재판 전이나 진행 과정에서 가족이 그와 대화할 수 없었다는 보도에 깊이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서한에는 크리스 스미스(공화·뉴저지) 의원을 비롯해 제임스 맥커번(민주·매사추세츠), 프렌치 힐(공화·아칸소), 거스 빌라리키스(공화·플로리다), 앤디 해리스(공화·메릴랜드), 마리아 엘베라 살라자르(공화·플로리다) 의원 등 모두 11명이 서명했다.

의원들은 파키스탄 정부에 파키르의 안전과 신변을 보장하고, 독립적인 변호인과 비공개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



이번 서한 발송을 주도한 크리스 스미스 연방하원의원 ©크리스 스미스 의원 페이스북(Chris Smith facebook)

다고 촉구했다. 또 가족과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사법 절차에서도 협박이나 부당한 영향 없이 자신의 뜻을 밝힐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파키르의 부모는 벽돌공장에서 일하는 기독교인 부부로, 네 자녀 가운데 셋째인 파키르가 기술을 익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종 약 두 달 전부터 현지 무슬림 가정에서 운영하는 재봉 교육센터

에 보내기 시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은 파키르가 실종된 뒤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며, 신고를 취하하라는 압박까지 받았다

고 주장했다. 국제기독교연대 측 변호인은 이후 라호르 고등법원에 인신보호 청원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5월 경찰에 파키르의 소재를 파악하라고 명령했고, 경찰은 그가 라호르의 정부 보호시설에 있다는 사실

을 확인했다.

이후 다시 인신보호 청원이 제기되면서 가족은 지난 6월 9일 재판에서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파키르를 볼 수 있었다. 당시 파키르는 이슬람식 복장을 하고 무슬림 여성과 이슬람 관계자들과 함께 법정

에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어머니와 자매는 파키르와 직접 대화하지 못했고, 법원도 가족과의 대화를 허용하지 않은 채 귀가 청원을 기각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파키르가 실종과 개종,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미국 의원들의 개입에 앞서 영국에서도 파키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다. 국제기독교연대는 지난 6월 16일 영국 상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사건을 소개했으며, 데이비드 알턴(David Alton) 의원은 이후 영국 정부의 중동·파키스탄 담당 관계자에게 서한을 보내 개입을 요청했다.

국제기독교연대의 조엘 벨드캠프(Joel Veldkamp) 대외정책 담당자는 “네하와 파키스탄에서 박해받는 모든 기독교인을 위해 목소리를 내준 의원들에게 감사한다”며 “파키스탄 정부가 폭력과 극단주의를 부추기는 불처벌 관행을 끝내고 기

교인과 다른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공격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점을 보여줄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네하를 집으로 돌려보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파키스탄에서는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적 소수자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강제개종, 강제결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인권변호단체 주빌리 캠페인(Jubilee Campaign)이 지난 7월 유럽의회에 제출한 ‘도난당한 소녀들(Stolen Girls)’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적 소수자 소녀들을 대상으로 제기된 납치·강제개종·조혼·성폭력 의혹 사례는 21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86건인 88.6%가 펀자브주에서 발생했다. 피해자의 83% 이상은 18세 미만이었으며, 보고서에 나타난 피해자 평균 연령은 12.8세였다.

오픈도어스(Open Doors)는 올해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World Watch List)’에서 파키스탄을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각한 50개국 가운데 8위로 분류했다. 오픈도어스는 구조적 차별과 군중 폭력, 강제개종, 강제노동, 성별에 따른 학대와 함께 미흡한 법 집행과 광범위한 불처벌이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계속되는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유진 김 기자

러시아군 공습에 우크라이나 기독교 구호 창고 전면 파괴

인근 요양원 노인 29명 참변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러시아군의 무차별적인 공습으로 우크라이나의 이재민을 돕던 현지 기독교 구호 단체의 대규모 물류 창고가 전면 파괴되고 인근 요양원에 거주하던 노인 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고 8월 3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 기독교 선교 단체인 우크라이나 포 크라이스트(Ukraine for Christ)는 지난 28일 저녁 발생한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자단체의 인도주의 구호 부서가 4년째 운영해 오던 물류 창고와 사무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단체 측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식량과 구호 장비, 발전기, 운송 차량 등 시설 내 모든 자산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막대한 양의 구호물자도 일거에 소실됐다.

우크라이나 기독교 구호 단체 측은 해당 시설이 오로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매일 사용되던 100퍼센트 민간 시설

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격으로 창고 부지를 제공했던 단체 협력자의 인근 사업장마저 완전히 붕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국제 구호 단체 글로벌 에이드 네트워크는 폭격 당시 구호 창고 바로 옆에 위치해 있던 노인 요양원까지 화마에 휩싸이면서 그곳에 거주하던 29명의 노인이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17만 5천 개 구호물자 소실 민간 및 종교 시설 피해 확산

CDI는 러시아군 공습으로 파괴된 건물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을 아우르는 해당 단체의 주요 원조 기지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1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이곳을 거쳐 갔으며 단체의 표준 구호품인 노란색 상자과 군인 위문품 등 총 17만 5천 개의 식량 꾸러미가 포장 및 배분됐다. 독일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의 협력 기관들이 보내온 600미터 톤 이상의 막대한 구호물자도 모두 이곳을 통해 전달됐다.

우크라이나 포 크라이스트는 단순한 보관 창고를 넘어 최전선 인근으로 향하는 구조 팀들의 전초기지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교단을 초월해 300개가 넘는 다양한 교회 및 비영리 단체들과 연대해 왔으며 우크라이나 보건부, 육군 사령부 군종실 등과 협력해 구호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부지 일부는 선박용 컨테이너를 개조해 전쟁으로 집을 잃은 가족들을 위한 임시 거주지로 활용되기도 했으나 이번 폭격으로 이들의 영적 돌봄을 위해 사용하던 선교 물품까지 전부 불타 없어졌다.

◆러시아군 민간 타격 부인 우크라이나 기독교 구호 단체 사역 재건 의지

모든 자산이 파괴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기독교 구호 단체 측은 당장의 급전직 지원보다는 향후 사역을 위한 영적 연대와 기도를 호소했다. 이들은 눈앞의 시설은 무너졌지만 결코 사역의 끝이 아니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

이라고 사역 재건 의지를 밝혔다. 한편, 우크라이나 포 크라이스트는 1991년 설립된 국제 대학생 선교회 산하 기관으로 현재 140여 명의 현지 직원이 구호 및 군종 사역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구호 창고 폭격은 8월 하순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의 물류 창고와 주거지,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한 러시아군의 대대적인 연속 공습 과정에서 발생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이래 우크라이나 전역의 종교 시설들은 지속적인 공격의 표적이 되어 왔다.

국제종교자유신앙동맹에 따르면 개전 이후 현재까지 파손이 확인된 종교 건물은 800곳이 넘으며 최소 80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우크라이나 정부 역시 러시아군이 종교 시설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으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군은 군사 시설만을 정밀 타격하고 있다며 민간 시설 훼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니엘 최 기자



소방관들이 지난 8월 28일 저녁 러시아의 공격으로 파괴된 인도주의 사역단체 ‘우크라이나 포 크라이스트(Ukraine for Christ)’의 창고 및 사무실 단지 잔해를 지나고 있다. 이 단체는 해당 시설이 지난 4년간 피란민 가정과 참전용사, 전선 인근 지역사회를 위한 구호물자 보관소로 사용됐으며 군사적 용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Ukraine for Christ / Facebook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중심.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에서 미래를 선도할 기업을 찾습니다!

원자력 산업 생산·수출 플랫폼

SMR

Small Modular Reactor | 혁신원자력

국가산업단지

☑ 광역접근성 우수

☑ 원자력산업 핵심시설 집적

☑ SMR 소부장 제조업시설 조성

경주시

국정원 “북미정상회담 어느 때라도 가능”

“구체적 접촉 확인 안 됐지만 대화 징후 있어”
“김주애,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

국가정보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가 끝난 뒤 국정원의 보고 내용을 전했다.

국정원은 북미 간 구체적인 접촉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후계 구도와 정보기관 개편, 내부 감찰, 첨단기술 해외 유출 차단 실적 등도 함께 보고했다.

◆“구체적 북미 접촉 없지만 대화 징후 있어”

국정원은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북미 간 구체적 접촉에 대한 팩트가 체크된 것은 없지만 대화의 징후는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직접적인 접촉이나 구체적인 협의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양국 정상 간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관련 당사국 간 대화와 관련해서는 국정원 차원의 별도 접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얘기했던 관련 당사국 대화에 있어 국정원 차원의 대화와 접촉은 아직까지 없다”고 보고했다.

◆“김주애,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

국정원은 북한 매체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모습이 자주 공개되는 배경에 대해서도 분석을 내놨다.

국정원은 “김주애가 언론에 많이 유출되는 이유에 대해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로 보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로서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애의 잇따른 공개 활동이 북한 주민들에게 차기 지도자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행보라고 판단한 것이다.

국정원은 북한이 기존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개편하고 방첩 기능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 개편…방첩



이양수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스

기능 강화

국정원은 “북한이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 개편했는데 방첩 기능을 굉장히 강화시켰다”고 보고했다.

정찰정보총국장인 리창호가 해외특수전사령부 부대장을 겸임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국정원은 “정찰총국장이 리창호인데 해외특수전사령부 부대장을 겸임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오는 작전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겸직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보되는 작전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처리하기 위해 정보기관과 해외특수전사령부의 지휘체계를 연계한 것으로 국정원은 분석했다.

◆국정원, ‘123’ 관련 대대적 감찰 착수

국정원은 ‘123 불법 내란’과 관련해 지난달 25일부터 대대적인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둘러싼 민간인 사찰 우려에 대해서는 특별감찰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존재한다”며 “특별감찰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다”

고 보고했다.

◆신형 원자로 설계도수리온 엔진 유출 시도 차단

국정원은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한 사례도 공개했다. 신형 원자로 설계도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엔진의 유출 시도를 적발해 막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신형 원자로 설계도를 유출한 것을 적발했다”며 “수리온 헬기 엔진을 유출하는 것도 적발해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AI 관련 업무를 총괄할 조직도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국정원은 ‘AI정책총괄관’을 신설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출신 전문가를 영입해 관련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AI정책총괄관을 신설해 카이스트 교수 출신 최고의 인재를 영입해 조직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박용국 기자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 현 정부 첫 실장급 교체

부동산 세제·레버리지 ETF 논란 속
지지율 하락 겹치며 정책 책임론 확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실장급 고위 참모가 교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실장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돼 약 15개월 동안 경제·산업·재정 정책을 총괄했다.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싼 비판이 커진 데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세까지 이어지면서, 김 실장이

부담을 느껴 사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경제·산업·재정 정책 15개월간 총괄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책실장으로서 주요 경제정책을 조율하고 산업·재정 분야의 국정과제를 총괄해왔다.

반도체 조호황에 힘입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년 만에 최고 수준인 3.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코스피도 한때 9000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 변

동성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증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여기에 보유 주력에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도 확산했다.

◆부동산 세제·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

김 실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책을 총괄한 김 실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 나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악화와 대통령·여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도 김 실장의 거취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당초 “김 실장 교체는 검토한 적이 없다”며 교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개각 당시 유임됐지만 이틀 만에 사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단행한 개각과 청와대 개편에서 김 실장을 유임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면서도 청와대 경제라인은 유지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 없이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킬 계기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만 교체하고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경제라인을 그대로 둘 경우 인적 쇄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개각과 청와대 개편 이후 야당도 김 실장의 경질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결국 부동산과 증시 정책을 둘러싼 비판, 국정 지지율 하락 등 여러 상황이 김 실장의 사퇴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와대 경제라인 추가 개편 가능성 주목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진 청와대 실장급 고위 참모 교체다.

김 실장이 물러나면서 청와대 경제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뉴스스

인의 추가 교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 쇄신 차원에서 정책라인 전반으로 인적 개편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경제부총리와 국토부장관을 교체하는 정도로는 부동산 민심 악화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증시와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여론 악화와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자 김 실장도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박용국 기자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의심 25건 추가 확인

경찰관 처리 사건 298건 재조사
구속 송치… 전국 31만 건 점검

제주에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처리한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유사 사례 25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해당 경찰관은 실종자가 일반 성인이라 안일하게 판단했고, 미종결 사

건 인건에 따른 업무 부담 때문에 허위로 종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처리 사건 298건 조사…25건 추가 확인

1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부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을 조사했다. 추가로 확인된 25건 가운데 10건은 안전 확인 없이 종결한 정황이 있었으며, 해당 실종

자들은 현재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5건은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했지만 전산에 ‘교통사고 사망’이나 ‘변사’ 등 실재와 다른 종결 사유를 입력한 사례였다. 부경장은 실종자와 연락하지 않고도 안전을 확인한 것처럼 신고자에게 알리고 전산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됐다.

◆최근 3년간 실종사건 31만 건 점검

경찰청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 건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 여부와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 비대면 종결 사건을 우선 살펴보고 부실 처리가 의심되면 재수사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시스템에서는 대면·비대면 종결 여부를 통제로 바로 추출할 수 없어 경찰관들이 사건 기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한 건 한 건 들어가면서 대면 종결했는지, 비대면 종결했는지 확인하다 보니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관리자 승인 도입… 비대면 종결 금지

경찰은 담당자가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관리자 승인 기능을 추가하고, 전화 통화 등에 의존한 비대면 종결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을 업무 부담보다 직무태만과 지휘·감독 체계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112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연계해 부실 처리 가능성이 큰 사건부터 객관적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30대) 경장. ©뉴스스

인 자료와 대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나래 기자

걱정은 나누고
위기는 함께하는 자조금~!

자조금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한국자조회

(사)한국인삼협회

(사)한국전환경농업협회

(사)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

(사)한국딸은감협회

(사)한국양파연합회

(사)한국마늘연합회

(사)한국포도협회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사)한국참외생산자협의회

(사)한국난재배자협회

(사)대한두채협회

농산 의무자조금 품목 현황

2015년 인삼을 시작으로 현재 **총 18개 품목**의 의무자조금이 조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비촉진 홍보

유통구조 개선

수급안정 + 가격안정

신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교육

농업소득 안정에 기여

자조금, 이런 일을 합니다

자율적 수급조절	경작 및 출하신고, 품질과 중량 등 시장출하 규격 설정, 출하조절 등 수급관리 지원
소비 홍보	품목에 대한 소비 및 수요 확대를 위한 캠페인, 판촉행사, 언론홍보 등
품질 개선 등 조사 연구	품목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유통창구 단일화 등 유통구조 개선 유도, 소비자 맞춤형 신품종 개발 등 연구개발 추진
교육 및 정보 제공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각종 교육과 품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자조금이란? 자조금단체가 농산물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财源으로 하여 조성·운영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 최대 1:1(자부담 50% : 국고 50%)까지 국고 매칭 지원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쌀 소비촉진 범국민 아침밥 먹기 운동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아침밥 먹기로 시작하세요!

농협

성경 속 기적 시리즈 9

물이 포도주로 변한 날,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신약 성경의 기적: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중심으로 - 요한복음 2장



이훈구 장로
G2G선교회 대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한 놀라운 기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메마른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키시는지 보여 주는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다.

1. 잔치의 기쁨이 끊어질 위기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은 큰 기쁨의 잔치였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며칠 동안 축하하며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그런데 잔치 도

중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단순한 작은 문제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매우 큰 실수이자 수치로 여겨질 수 있는 일이었다.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자리가 갑자기 난장판 분위기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리게 된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참 짧은 말이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던 돌항아리 여섯 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다. 하인들은 이유를 다 알지 못했지만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리고 그 물은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부족한 포도주를 채워 주신 것만이 아니라, 메마

른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2. 메마른 시간을 지나며 깨닫게 된 것

이 장면을 묵상하다 보면 삶 속에서도 비슷한 순간들이 떠오른다. 10여 년 전, 교회 일로 인해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 시무장로로 섬기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는 여러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다. 성도들은 더 많은 예배와 기도회를 원하고 있었지만, 당시 담임목사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 충돌과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큰 부담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교회에 나가는 것 자체가 마음의 짐처럼 느껴질 정도로 힘든 시간도 있었다. 그렇다고 말려진 사명을 내려놓을 수도 없었다. 돌아켜 보면 참 어렵고 답답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며 한 가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 교회 일은 사람이 앞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었다. 내 생각과 방법으로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질 때가 많았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기다리기 시작했을 때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금도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묵상하면 그 사실이 떠오른다.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결국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이셨다. 하인들은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돌아켜 보면, 힘들었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계셨던 것이다.

3. 순종할 때 시작되는 변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에서 중요한 장면 가운데 하나는 하인들의 순종이다. 그들은 왜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워야 하는지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기적이 시작되었다. 삶 속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많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한 후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믿음은 이해보다 먼저 순종으로 나아가갈 때가 많다.

작은 순종처럼 보이는 행동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기도를 계속하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어쩌면 작고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신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은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러나 분명 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하실 때 잔치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사실이다.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함

께하실 때 메마른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물이 포도주로 변한 날,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 예수님은 메마르고 부족한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 교회와 삶의 문제는 조급함보다 기도로 하나님을 기다릴 때 풀려 가게 된다.
- 힘들고 갈등이 많은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는 과정으로 사용하신다.
-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하나님이 삶의 무거운 시간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

이스탄불에서 드리는 편지



권준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3년 전쯤,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로부터 이곳 수련회를 섬겨 줄 수 있겠느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바로 올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3년 정도 후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간이 어느덧 지나고 정말 이렇게 이곳에 와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80여 명의 성인들과 50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두가 마음껏 웃고,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쉽고 위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린 것은 짧은 시간이었으며, 우리의 섬김도 부족하지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지친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만져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곳의 선교사님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가까이에서 들으며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튀르키예의 경

제 상황은 전쟁의 여파와 함께 지 난해와 비교해서도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물가는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올랐고, 이곳에서 생활하며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삶도 그만큼 어려워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후원받는 선교사님들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었고, 미국에서 파송 받은 선교사님들도 높은 물가 때문에 사역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란 난민들을 섬기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그들을 돌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재정을 쏟아부어야 하니 마치 밀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돕고 싶어도 모든 필요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분들이 느끼는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기도 제목을 해결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마음에 품고 왔습니다. “잠시라도 이분들이 쉬게 해 드리자. 가족과 함께 웃게 해 드리자.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아갈 힘을 얻도록 위로해 드리자.”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 온 작은 선물과 물품 하

나하나에도 사랑과 정성을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사용해서 주시기를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마치면서 선교사님들이 눈물로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사랑과 정성이 느껴졌다고, 오랫동안 마음에 남을 것 같은 귀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져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결국 사람을 위로하시는 분도, 힘을 주시는 분도, 다시 일어나 사역의 자리로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 이심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팀과 함께 튀르키예 현지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곳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찾아가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하며, 그분들에게도 작은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여정을 통해 함께 하는 팀원들의 마음이 더욱 가까워지고,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형제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예배 되기를 멀리서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며, 우리는 자라고 있는가?



이진호 목사
시애틀 십자가교회

이번 한주는 유난히 밤이 더웠습니다. 잠자리에 들어도 쉽게 잠이 들지 않았고 어렵게 잠이 들어도 한 시간에 한 번씩 깨곤 했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깨어나지 않았고, 피곤함이 하루 종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핑계가 좋아서인지,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잠이 깨면 다시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하루 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할 내용들이 더 많아 지는 것 같을 거예요. 전에는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도 하나 둘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람의 작은 아픔이 생각나고, 지나간 대화 한 마디가 마음에 걸리고, 교회의 작은 일

하나까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힘들지 하면 할수록 더 느는 거야” 참 맞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 꾸준히 하면 실력이 늘고 그것이 자랍니다. 운동을 하면 체력이 늘고, 책을 읽으면 지식이 높아지고, 악기를 연습하면 실력이 늘어갑니다.

반대로 걱정도 오래 하면 걱정이 늘고, 불평도 반복하면 불평이 늘어납니다. 잘못된 습관도 계속 반복하면 더 단단해져서 나중에 없애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질문이 마음에 생겼는데요. 나는 지금 무엇을 계속 들어하고 있는가? 무엇에 시간을 쓰고 있고, 무엇을 자주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반복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마음을 쓰고 있는가?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자라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것 값을 거예요. 전에는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도 하나 둘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람의 작은 아픔이 생각나고, 지나간 대화 한 마디가 마음에 걸리고, 교회의 작은 일

삶을 기도와 감사로 채우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고, 감사

하면 감사의 눈이 더 열립니다. 마음을 가까이하면 말씀으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자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반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정성을 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1년 후에도 계속 자라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더 많이 염려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더 쉽게 불평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만드는데, 우리의 마음이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감사를 심고, 사랑을 심으세요. 오늘의 작은 기도가 내일의 큰 믿음이 되고, 오늘의 작은 순종이 내일의 아름다운 열매가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정성껏 하세요. 그러면 어느날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라게 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행복을 水 놓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황기순·박상민, 제24회 ‘사랑더하기’ 거리 모금 성금 2,210만 원 전달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여준)는 개그맨 황기순과 가수 박상민이 제24회 ‘사랑더하기’ 거리 모금을 통해 마련한 성금 2,210만 원을 기부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1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는 황기순, 박상민 씨를 비롯해 가수 강진 등 거리 모금 공연 참여자, 사랑의열매 윤여준 회장과 이상의 사무총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해 모금함을 개봉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은 노인 무료 치료와 유아차 지원, 겨울철 연탄 나눔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제24회 ‘사랑더하기’ 거리 모금은 지난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서울 남대문로 ▶인천 월미도에서 진행됐다. 무더위 속에서도 황기순·박상민 씨와 함께 ‘땀발’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은 가수 강진, ‘안동역에서’ 등을 부른 가수 진성 등 40여 명의 연예인이 재능기부 공연에 나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나눔 참여를 독려했다.

‘사랑더하기’는 황기순 씨가 2000년 모금 활동을 통해 휠체어 52대를 장애인 단체에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자전거 국토대장정과 거리 공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과 함께해왔다. 이후 동료 연예인



(왼쪽부터)가수 강진, 박상민, 사랑의열매 윤여준 회장, 개그맨 황기순, 사랑의열매 이상의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성금 전달식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단체 측 제공

과 자원봉사자들이 재능기부로 힘을 보태면서 20년 넘게 이어진 시민 참여형 모

금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모금액을 포함한 ‘사랑더하기’의 누적 모금액은 총 7억 6,580만 원에 달한다.

황기순 씨는 “‘사랑더하기’가 24회째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더운 날씨에도 재능을 나눠준 동료들과 거리에서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시는 시민들 덕분”이라며 “박상민 씨를 비롯해 오랜 시간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힘이 닿는 데까지 시민들과 함께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여준 사랑의열매 회장은 “‘사랑더하기’는 24회 동안 시민들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전해온 소중한 전통으로 자리 잡

았다”며 “무더운 날씨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해주신 황기순·박상민님과 공연 참여자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시는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황기순 씨는 2000년부터 ‘사랑더하기’를 이끌어왔으며, 박상민 씨도 2005년부터 합류해 매년 여름 거리 모금과 공연을 함께해왔다. 두 사람은 ‘사랑더하기’를 계기로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맺었으며, 황기순 씨는 2010년, 박상민 씨는 2013년 각각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위촉돼 지금까지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다니엘 최 기자

굿네이버스-경기도아동돌봄의정부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꿈 응원 위해 꿈지원단 ‘지니어스’ 위촉

굿네이버스 경기도동부사업본부(본부장 차해진)는 경기도아동돌봄의정부센터(민락다함계돌봄센터) 하진희 센터장을 굿네이버스 꿈지원단 ‘지니어스(GNI-US)’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굿네이버스 꿈지원단 ‘지니어스(GNI-US)’는 아동들이 자신의 꿈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응원하는 경가강원권역 꿈지원 캠페인이다. 지역사회 리더와 기관, 기업 등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아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하진희 센터장은 경기도아동돌봄의정부센터 센터장으로 지역사회 아동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에서 건강



위촉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 ©단체 측 제공

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오고 있다. 이번 꿈지원단 위촉을 통해 아동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활동에 함께하게 됐으며, 굿네이버스 후원에도 동참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

하진희 경기도아동돌봄의정부센터 센터장은 “아이들이 안정적인 돌봄 안에서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꿈지원단 활동과 후원을 통해 아동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위촉은 지역사회 아동의 돌봄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동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는 나눔 활동에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굿네이버스 경기도동부사업본부는 앞으로도 보육·돌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아동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

갈 예정이다.

차해진 굿네이버스 경기도동부사업본부장은 “지역 아동의 돌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현장에서 힘써오신 하진희 센터장님께서 꿈지원단과 후원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아이들의 성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돌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굿네이버스 꿈지원단 ‘지니어스(GNI-US)’는 경기도 광주·구리·남양주·성남·양평·의정부·포천·하남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돌봄 관련 기관, 기업 및 지역사회 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다니엘 최 기자

기아대책, 목회자 700여 명과 ‘2026 전국후원이사세미나’ 진행



세미나를 마친 후 기념촬영에 임한 참석자들의 모습. ©기아대책

기아대책(회장 최창남)이 지난 8월 31일 청주에서 전국 후원이사 약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전국후원이사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아대책 후원이사회는 1996년 부산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120여 개 지역사회에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목회자 및 크리스천 리더들의 모임이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후원이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아대책의 선교 비전과 주요 사역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선교와 나눔을 위한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최창남 회장이 ‘나눔보다 구별된 다음 1-기아대책의 선교전략’을 주제로 기초강연을 진행하며 기아대책의 선교적 정체성과 향후 사역 방향을 공유했다. 미얀마 한희준 기대봉사단 등의 해외 현장 사역 소개와 함께 박재범 부회장이 ‘나눔보다 구별된 다음 2-함께하는 선교적 교회(Church N Together) 현황 및 사례’를 주제로 강연했다.

또한 좋은이웃 명성교회 김인환 목사의 사례 발표를 통해 교회와 선교 현장

이 함께 만들어가는 동역의 의미도 나왔다.

함께하는 선교적 교회 캠페인은 선교적 연합 모델로, 기아대책이 한국교회와 함께 지역과 이웃을 전략적이고 지속적으로 섬겨 지역에서 건강하고 신뢰받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협력하는 캠페인이다. 지역사회 위기가정을 돕는 ‘온마을 프로젝트’, 미자립교회와 목회자를 지원하는 ‘온교회 프로젝트’, 이주배경가정과 탈북민을 지원하는 ‘온세대 프로젝트’, 선교사 파송 등 다양한 해외 선교 사역을 지원하는 ‘온열방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이 밖에도 헤리티지클럽(유신기부) 소개와 전시, 행복한나눔 바자회 등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기도회를 통해 전국 후원이사회 간 연대와 향후 선교 사역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최창남 회장친구 기아대책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기아대책만의 ‘구별된 다음’을 함께 실천하고, 한국 교회와 연대에 지속가능한 선교적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니엘 최 기자

양천해누리복지관, ‘골프공은 그린으로, 나눔은 장애인의 일상으로’

112명이 함께한 제8회 자선골프대회 성료

양천해누리복지관(관장 김경환)은 장애인의 별일 있는 일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나눔을 확산하기 위한 제8회 자선골프대회를 최근 가평 리앤리CC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지역주민, 단체, 기업 등 112명이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으며, 애경산업(주)에서 5,000만 원 상당의 생

필품을, 스미스웍스골프 코리아(대표 송종현)에서 300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후원하며 따뜻한 마음을 보냈다.

대회를 통해 마련된 후원금은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 ▲장애인 권익 향상 프로그램 ▲계절별 물품 지원 ▲장애 아동 재활치료비 지원 등 장애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גיע 양천구청장은 축선영상을 통해 제8회 자선골프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자선골프대회를 통해 따뜻한 나눔에 함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 ©단체 측 제공

께해주신 기부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오늘의 귀한 정성과 후원금이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양천구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공동체를 위해 이웃과 함께 나누고 서로를 돌보는 상생의 양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천해누리복지관 자선골프대회는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대회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으로 매년 저소득 장애인 250가정 이상을 지원해왔다. 복지관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나누며, 장애인의 ‘별일 있는 일상’을 만들어가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다니엘 최 기자

행복한 동행 전국 지역 지부 및 센터 모집

교회와 선교를 잇는 ‘행복한 동행’이 전국 지역 파트너를 찾습니다

주요 유료 서비스

부모님 안부/건강, 맞벌이 육아 동행
어르신 정서 지원/치매 예방
반려동물 산책&장례
법률/병원 입·퇴원 동행
생활 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

모집 대상

동행매니저, 노인돌봄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자격자 및 시명감 있는
교회/단체 환영!



앱(App) 기반 전국 매칭 시스템 구축

2025년 11월, 구글/애플 앱스토어 전격 출시!

앱스토어 검색 "동행365"

병원부터 생활까지 동행 생활 맞춤 동행

전국 지부, 센터 문의

1544-1322

010-7546-7933

동행매니저와 노인돌봄생활지원사, 기타 민간자격증 자체 교육 후 발급 가능합니다



www.gacci.net
행복한 동행

천혜의 자연환경, 영동 풍성기도원 매매

-위치: 충북 영동군 영동읍 479-8 외 1건
(영동역 5~10분 거리)
-규모: 토지: 834평 / 건물: 139.75(평)+@ (철근 콘크리트 구조)
-수용인원: 100명 이상 수용 가능.

[시설 현황]

1. 제1·2성전, 방 10개(에어컨 완비), 기도실 5개,
화장실 7개, 주방 3개, 넓은 주차장, 아름다운 조경,
2. 바로 앞 시냇물(수영 및 낚시 가능)

[특별 혜택]

1. 운영비 제로: 태양광(9kw) 및 지하수 사용으로
전기·수도료 무상 수준.
2. 성물 무상 양도: 강대상, 음향, 피아노,
의자 등 몸만 오면 즉시 운영 가능
매매가: 9억원 (답사 후 협의 가능 / 용도변경 가능)

경북 영주의 수정교회 및 주택부지

-위치: 영주시 가흥동 637-7
-대지: 76평 -매매가: 1억 5천만원

매/매/문/의
010-9679-8275, 010-9883-8275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연 3.99%~5.49%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moon4903012@hanmail.net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60:1)



다문화복음방송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대표 김 덕 겸 목사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가나 국기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임만재 목사 초청 부흥세미나



**교회여,
다시 부흥하자!**

임만재 목사
(충주 용원교회 원로)

- ▶ 저서: <날도둑 날강도가 많은 교회>
<십일조 안내면 받으러 가자> 외 다수
- ▶ 장신대학원(82기), 목회학박사(맥코믹5기)
목사·장로·권사 제직 세미나 강사
사경회 강사, 인문학 강사, 유튜브(임만재TV)
총회부흥회 강사(전)

연락처: 010-9069-3044, 010-3177-6999
lmj132@hanmail.net

<집회교회>

창천교회 세계로금관감리교회 강남중앙교회 하늘비전교회
영등포교회 포도원교회 포항장성교회 오원교회 구로문교회
북대교회 청복교회 대성교회 안동교회 중문교회 인천시연합
안동시연합 청주시연합 제천시연합 각종 세미나 등 500회 이상

[사]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1995년 개척하여 2번의 건축을하고
30년 동안 부흥·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부흥회

부흥회 지원

강사 약력

- 20년동안 1000회 이상 부흥집회 인도
- 한샘교회 담임목사
-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사) 現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56대 대표회장
- 現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 Good TV 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

한샘 교회

- 1995.9 개척
- 2000.4 1차 성전건축
- 2008.1 2차 성전건축

방향 및 성령의 역사

- 철저히 개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 개교회의 목회방침에 따라
-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짐
- 학생, 청년이 꿈을 꾸고, 길이 열리며 부흥·성장함
- 영·육·물질의 문제가 해결,
- 기둥이 세워지고 축복의 증거가 나타남
- 사탄의 역사가 끊어짐

신청 방법

이승현 목사:
010-8913-7777
·한샘교회: 032-512-3375

지원 대상

-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 낙도·오지교회
- 3 無 부흥회:
사례, 숙소, 식사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경기·화성시·봉담읍·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인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도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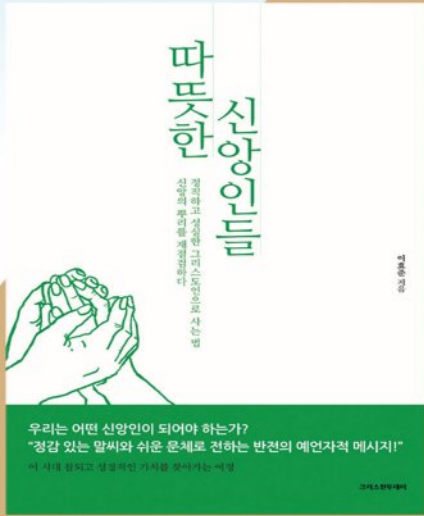
빠른구매

80개 언어 번역

AI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영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폴, 토익 등 대용량 단어장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 (창원내산교회)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성경의 역사 성경의 형성사 및 번역사 (1)

초기의 히브리성경 구약성경은 BC 1450년에서 BC 400년까지 무려 1000년에 이르는 기간에 걸쳐 기록되었다. 보수주의 신학자들에 의하면, 모세는 최초로 영감을 받은 성경 기록자로서 대략 BC 1450~1400년경에 모세오경을 기록했다고 한다. 구약의 마지막 기록자인 말라기는 BC 400년경에 성경을 기록했다.

구약의 본문(本文, Text) 구약성경의 첫 부분은 갈퀴모양의 문자인 고대 히브리어로 가족이나 파피루스에 기록되었다. 이 고대 문자는 점차로 발전되어 BC 400년 이후에는 둥근 종 모양의 문자로 되었다. 이 종 모양의 문자는 사해 사본과 마소라 사본과 1477년 이후 인쇄된 히브리성경에서 발견되었다.

구약의 정경화(正經化) 성경의 정경이라 함은 권위있고 성스러운 문서의 목록으로 지정되었다는 말이다. 헬라어에 이러한 표현으로 “카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원래 갈대나 자(尺)를 뜻한다. 실제로 이것은 “측정하는 것”, 즉 표준규범·규칙을 나타내며, 특히 표준이나 규범으로서 “측정 되어지는 것”을 의미했다. 하나님의 영감과 권위의 표준이나 조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정되었던 책들은 “정경”으로 편집되었다.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영감된 성경이 공식적인 수집이나 단순한 인준에 의하지 않고 성령을 통한 영감의 중요성 때문에 정경으로서의 권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성경비평학적 견지에서 볼 때, 정경화의 과정은 오랜 세월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논법에 따르면 BC 444년에 율법서가 제일 먼저 정경이 되었고 예언서는 BC 400~200년이 되어 서야 정경화되었으며, 성문서가 대략 BC 165~100년경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경비평학에서는 히브리정경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본래 연대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본다. 예언서는 BC 300년 이 지나서야 대중화되어 그 결과 그 다음 세기에 수집되어 정경화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소위 제2이사야와 제3이사야(대체로 40~66장)는 그

기록자들을 전혀 찾아낼 수 없으므로, 이사야서의 뒤에 부착시켰다고 한다. 다니엘서는 BC 167년 이 지나서야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에스더와 역사상·하 그리고 에스라·느헤미야도 너무 늦게 작성되어 역사서 부분에 포함시킬 수 없어 성문서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히브리 정경의 삼분화를 기록자의 신분이나 예배의식의 편의상의 배열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구약의 완전성이 유지되는 초기 연대를 고수하고 있다. 또한 유대 정경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가 항상 신교의 입장이 되어왔다.

마소라 학자들의 활동 AD 500년 이전의 히브리 사본에는 장모음을 표시하는 일부 자음을 제외하고는 모음체계가 없었다. AD 600~950년에 이르러 마소라(Masoretes)라고 일컬어지는 유대인 학자들이 본문을 보다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완전한 모음체계와 악센트를 보완해냈다. 그들은 또한 케리(Keri)라고 명명되는 난외(marginal readings)와 케티브(kethiv)라고 명명되는 본문과 상이한 것(textual variants)을 수록하여 본문을 표준화시키기도 하였다. 마소라 학자들의 히브리 성경 연구는 5세기 후에 성경을 인쇄하는데 있어서 기틀을 마련했다.

히브리성경의 인쇄 인쇄된 히브리성경의 제일 첫 부분은 사편이었다. 이것은 1477년의 일이었으며, 1488년에는 모음부호와 악센트가 첨가된 히브리 구약성경 전체가 첫 출판을 보게 되었다.

최초의 기독교 성경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후 거의 20년 동안은 주로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성경이 유일한 성경이었다. 최초의 신약성경은 일찍이 AD 45년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되는 야고보서가 분명하다. 요한계시록은 일반적으로 9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장 뒤늦은 책이다. 초대 교회에서는 구약만을 성경으로 사용하였다. 베드로는 스테반(행 7:2-53), 빌립(행 8:32-35), 바울이 그러하였듯이 구약(행 21:4-16)을 가지고 설교하였



다. 신약의 모든 기록자들은 구약을 익히 알고 있었으며, 그들의 영감적 기록은 구약에서 영감을 받는 계시에 근거하였다.

신약의 기원 복음(고전 15:3, 4)은 초기에 구전을 통하여 전파되고 구약 역사와 예언에 비추어 해석되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구전은 글로 기록되어 마침내 AD 70년경에 영감적인 공관복음을 형성하게 되었다. 율법주의나 비도덕주의와 같은 오류에 반하여 기독교를 정의할 필요가 강조되어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을 요하게 되었다. 바울서신과 그 외 일부 서신들이 이를 위해 기록되었다. 교회의 발전에 대한 역사적인 개괄적 설명은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다. 요한계시록은 시간과 영원에 대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 기록되었다.

신약의 정경화 정경화 이전의 초기 신약서들 제1클레멘스 로마의 클레멘스가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BC 96년)로 매우 높이 평가되었다. 이것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하여 정경의 권위가 있다고 인정되었으며, 170년경 고린도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낭독되기도 하였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

스나 오리게네스와 같은 이집트의 기록자들은 이것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사본에 포함되어 있다.

제2클레멘스 역시 알렉산드리아 사본에 포함되었던 서신이다. 이것은 로마의 클레멘스의 것으로 잘못 간주되었으며 널리 읽히지 않았다. 이것과 제1클레멘스는 여전히 서방에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12사도의 교훈집(Didach, 120년경)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나 오리게네스와 같은 일부 이집트 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으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널리 회람되었다. 바나바의 편지(130년경) 사내 사본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집트에서는 권위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에로니무스(400년경)는 이것을 외경으로 여겼으며, 이것은 점차로 성경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해갔다. 헤르마스의 목자서(140년경) 로마의 주교이자 파우스의 형제인 헤르마스에 의해 기록되었다. 이것 역시 사내 사본에 수록되어 있고 무라토리 정경(Muratorain Canon)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성경으로 인정받은 적은 없다.

베드로의 목시록(145년경) 앞에서 열거한 책들 보다는 다소 중요성이 떨어지나 동방에서는 매우 귀중하게 여겼고 서방에까지 알려졌던 것이다. 이것은 유세비우스에 의하여 허위문서로 인정되었다. 바울행전(170년경) 널리 회람되었고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 정경으로 여겨졌으나, 학자들의 연구 결과 외경적인 성격이 드러나 점차 정경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졌다. 사도들의 이름으로 이후에도 많은 복음서, 행전, 서신과 목시록 등이 나타났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명백한 허위문서로, 교회는 이것들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신약 정경화의 원인 정경 또는 반정경으로서의 제1클레멘스서, 12사도의 교훈집, 바나바의 편지, 헤르마스의 목자서 등을 인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동방에서는 3세기 말 명확하게 제정된 정경의 필요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마르키온 이단(140년경)의 불완전한 정경 역시 당시 널리 읽히지고 있었

다. 마르키온은 영지주의자로서 누가복음과 바울서신 가운데 10편만을 그것도 많은 삭제한 후 그들의 교리적인 근거로 삼았다. 정경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다른 외경적인 위문서들의 출현으로 정경을 명확히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했다. 또한 후일 모든 성문서를 불사르라는 로마의 박해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칙령도 정경의 제정을 독촉했다.

신약 정경성의 표준 그 첫째 표준은 “사도성”이었다. 기록자가 진실로 사도인가? 아니면 마가복음의 기록자나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히브리서신의 기록자의 경우와 같이 그가 사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둘째 표준은 “내용”이었다. 그 주제나 그 주제의 취급과 영적인 특징이 성경으로서 합당한가? 이러한 기준에 의해 위문서들은 제거되었다. 셋째 표준은 “보편성”이었다. 교회가 전반적으로 그 문서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문서가 보편적인 호소력을 지니고 있었는가? 넷째 표준은 “영감성”이었다. 그 문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딤후 3:16)라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께서 이것은 진실하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었는가? 이것이 마지막 기준이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더라면 신약 정경은 올바르게 제정될 수 없을 것이다. <계속>

더로렘 | 성경의 형성사 및 번역사 작성자 이종호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Galatians 4:7 NIV
So you are no longer a slave, but God's child; and since you are his child, God has made you also an heir.

- no longer: 더 이상 ~ 아님
- slave: 노예
- since (접속사): ~ 이므로, ~ 때 문에
- heir: 계승자, 후계자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카카오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바이블지식IN

성경은 결혼관계에서의 연령차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성경은 결혼 관계에서 (혹은 그 점에 있어서 다른 모든 상황에서)의 연령에 대한 예시를 거의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10살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창세기 17:17), 성경에서 부부 모두의 나이가 밝혀진 경우는 아브라함과 사라 외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 마리아보다 상당히 나이가 많았다고 종종 추정되고 있지만, 성경 안에서 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혼에서 연령은 중요하지만, 이것은 구원, 영적 성숙함, 궁합 등과 같은 다른 문제들보다는 훨씬 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 감에 따라, 연령차는 점점 더 중요성이 적어집니다. 80세인 사람이 60세인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아무도 두 번 생각하지 않지만, 40세인 사람이 20세인 사람과 결혼하면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결혼의 연령차에 대한 경고를 한다면 그것은 불순한 목적으로 젊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과 돈을 위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가장 좋은 행동 방침은 모든 장래의 관계에 대해 지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5).

갯케스천스 제공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 KFC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FC 한국농어촌공사

강정훈의
성서화 탐구

◆ 강정훈 교수

강정훈 교수는 연세대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그리고 성균관대학원 (행정학박사)을 졸업하고 제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뉴욕총영사관 영사 및 조달청장(1997~1999)으로 봉직했다. (사)세계기업경영개발원 회장 및 성균관대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신성대학교 초빙교수(2003~2016)를 지냈다. 미암교회(예장) 원로장로이며, 1994년에는 기독교잡지 '새기대'에 1년 2개월간 성서화를 소개하는 글을 연재한 후 현재도 서울 성서화 라이브러리(<http://blog.naver.com/yanghwajin>)를 운영하며 성서화를 쉽고 폭넓게 전파하기 위해 꾸준히 글을 쓰고 있다. 저서로는 "천년의 신비 성서화" "이천년의 침묵 성서화" 등이 있다.

중세 삽화로 읽는 요한계시(9)
7년 대환난 절정기의 암호 풀기
(제11장)

7년 대환난의 서곡을 보여주시던 하나님은 다시금 요한에게 성전 측량을 하라고 명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이 교회를 핍박하는 환상을 보여주며 두 증인을 세워 예언하게 하겠다고 약속한다. 이제 7년 대환난의 절정을 향해 가며 암호 같은 숫자가 연속적으로 등장한다.

■ 두 증인과 1,260일 동안의 예언(전 3년 반의 회개 촉구)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일천이백육십 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요, 쫓대 두 개입니다."(계 11:3-4)

두 증인은 문자적으로 본다면 모세와 엘리야를 가리킨다. 위의 삽화에서도 바로 그 이름을 적어 넣었다. 그러나 두 증인은 모세(율법)와 엘리야(선지자)의 기능을 가진 교회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올리브나무)와 두 쫓대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두 감람나무는 스가라사에서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요한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쫓대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선지자적(모세, 엘리야) 기능을 가진 교회는 또한 왕적(스룹바벨), 제사장적(여호수아)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0세기에 제작된 위의 삽화는 주제는 그리스도교적이지만 표현양식은 이슬람의 장식적 주제와 형태에 동화한 것을 보여주는 모사라베 미술(Mozarabic art)의 아름다움을 전해 주는 베아투스묵시록 주석서의 사본인 헤로나묵시록에 실린 <

두 증인>이다. 중세 묵시록 삽화 중에서는 가장 귀중한 대접을 받는 매뉴스크립트이다.

이 삽화에서는 모세와 엘리야 양쪽에 올리브나무 두 그루가 서 있고 두 증인 좌우에 세워진 쫓대 위에 연결된 올리브 나무 잎이 핀 둥근 쫓대 위에는 등불 두 개가 달려 밝게 빛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하는 일은 상복을 입고 "1260 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고 기록하고 있다. 무슨 암호 같은 1,260 일을 풀어보면 바로 3년 반을 의미한다. <7년 대환난>의 전반기인 <전 3년 반> 시기에 교회는 성도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격려하는 예언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굵은 배운은 회개 할 때 입는 상복이었다.

■ 증인의 죽음과 사흘 반 동안 시체 구경(후 3년 반의 시작)

증인이 예언을 끝내면 깊은 구렁(무지개)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증인을 죽이는 가공할만한 대환난인 <후 3년 반>이 시작된다.

위의 실로스 베아투스의 삽화는 적그리스도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두 증인을 죽이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렸다. 실로스 베아투스(Silos Beatus)의 묵시록 사본은 북부 스페인의 부르고스 남쪽에 있는 실로스의 산토 도밍고 수도원에서 1090~1109년경에 베아투스 묵시록을 필사하면서 106매의 채색삽화를 첨가한 사본으로서 현재는 영국 국립도서관(런던)에 소장되어 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계11:9)

깊은 구렁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은 다니엘에서 나오는 네 짐승처럼 요한 당시 사람들이 다 알만한 마지막 날에



두 증인 | 헤로나 베아투스 사본 | 리에바나 베아투스의 묵시록주해서 | 975년경, 양피지 | 헤로나성당박물관 | 카탈로니아, 스페인 | The two witnesses | The Gerona Beatus Codex | Commentary on the Apocalypse by Beatus of Liébana | c.975. Parchment, 36×23cm | the museum of Gerona Cathedral | Catalonia, Spain.

있을 최대의 적대세력을 상징한다.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이 순교해도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구경하는 모욕을 당한다는 것이다. 여기의 "사흘 반"은 7년 대환

난 중 <후 3년 반>을 가리킨다.

후 3년 반을 가리키는 가장 어려운 암호는 계시록 12장에서 용(사탄)이 아이(그리스도)를 낳은 여인을 핍박하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a time, times, and half a time (12:14)"라는 용어로서 이 또한 교회가 극렬한 박해를 받는 <후 삼년 반>을 상징한다.

■ 사흘 반 후 증인의 부활과 휴거(후3년 반의 종료)

후 3년 반의 고통의 기간이 지나고 교회는 승리하게 된다. 7년 대환난 기간에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은 에스겔사에서처럼 마른 뼈에 생기가 돌아 일어선고 비밀스런 휴거가 아닌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된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 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이리로 올라 오나라 하는 큰소리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울려 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 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 보았습니다."(계 11:12)

계시록 11장에는 3년 반을 의미하는 숫자로서 마흔 두 달, 3 일 반, 1,260 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등의 어려운 암호 같은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른바 <7년 대환난설>이 생겨났던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여기의 7년은 문자적인 7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 기간은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승천부터 재림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든 그 때는 이방왕에게 주어진 기간이므로 그것을 7년으로 본 것이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교파에 따라서 7년 대환난설을 제 각기 주장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세계 신학계에서 오래 동안 논의를 거친 주류의 해석이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시록의 기록과도 부합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오늘의 예화

경건의 기도

16세에 주님을 영접하여 93세까지 80년 가까이 기도한 사람으로, 자기가 낳은 일곱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자, 증손자들과 수천 명에게 깊은 감명을 주어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영

감을 불러일으킨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그녀가 남을 비판하거나 불친절한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을 위탁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처럼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경건 훈련에 있었습

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시간을 정하여 그 시간을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삶의 최우선을 경건의 시간에 두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중대사가 일어나도 경건의 시간만은 지

키려고 하였습니다. 나이가 점점 많아져서 거동하기도 불편해졌을 때 자녀들이 모시겠다고 했으나 아직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공부 할 수 있는 동안은 혼자서 살고 싶다고 하면서 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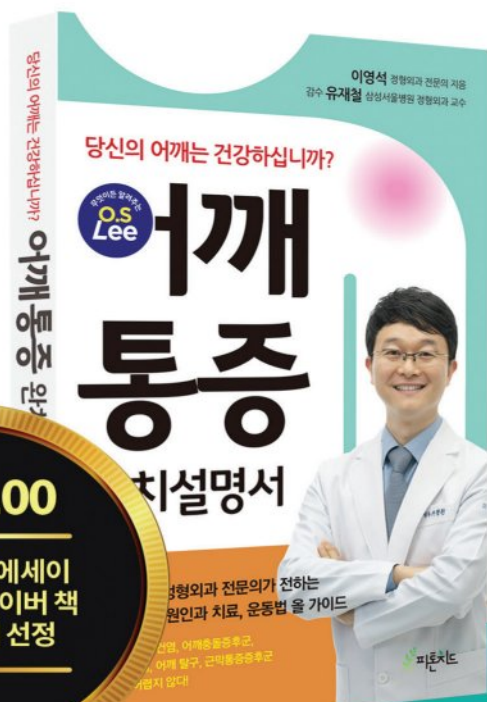
93세가 된 연로한 노인이지만 기도하는 일과 말씀 공부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중보기도의 명단을 작성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열매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을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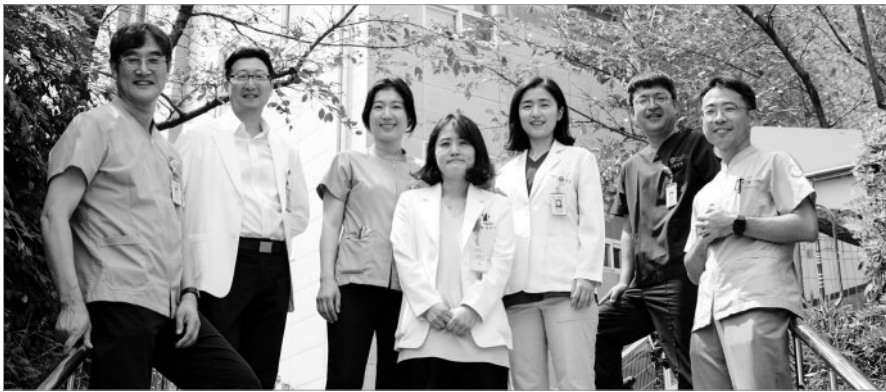


예수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8명, 1000만 원 이상씩 기부

전북권역통합재활병원 건립·병원 발전 위해 뜻 모아
“50년 전 의료선교사들의 헌신 이어가겠다”

전주 예수병원 재활의학과 과장급 전문의 8명 전원이 전북권역통합재활병원 건립과 병원 발전을 위해 각각 1000만원 이상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예수병원은 최근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이 선배 의료진의 개척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 재활의료 발전에 힘을 보태기 위해 기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기부에 참여한 전문의들은 “아무도 건지 않던 척박한 땅에 재활의학의 씨앗을

심은 50년 전 의료선교사들의 숭고한 헌신을 이제 8명의 후배 의사가 이어가겠다”고 기부 취지를 전했다.
예수병원 재활의학과는 국내에서 재활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1974년 미국인 의료선교사 서요한(John Shaw)·서신애(Sharon Shaw) 부부의 헌신으로 시작됐다. 당시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 재활의료팀을 구성해 진료에 나선 것이 출발점이었다. 병원 측에 따르면 예수병원은 초



왼쪽부터 윤용순, 이광재, 유기배, 최철리, 김은실, 윤석봉, 이정후 과장 ©예수병원

기 의료선교사들의 활동을 토대로 1980년 국내 최초로 성인을 위한 독립된 재활의학과 입원실 24병상과 수치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갖춘 재활병동을 신축했다.

1981년에는 보건사회부 작업치료사 수습기관으로 지정돼 재활의료진과 치료사를 양성했다.
예수병원은 지난 7월 전북권역통합재활병원 착공식을 열고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곳은 지역 장애인과 중증 환자들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공공 의료 거점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정후 전북권역통합재활병원센터장은 “1970년대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도 묵묵히 재활의학의 기초를 다진 의료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환자들을 돌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8년 문을 열 전북권역통합재활병원이 의료 소외계층과 지역 장애인들에게 최상의 치유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8명의 진료과장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신종식 예수병원장은 “척박했던 시절 장애인의 전인적 치유를 위해 평생을 바친 의료선교사들의 정신을 후배 전문의들이 직접 이어가는 모습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며 “의료진의 뜻이 담긴 발전기금은 전북권역통합재활병원이 수준 높은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장요한 기자

이스라엘 수감 팔레스타인 기독교인 32개월 만에 석방... “성경 반입도 거부”

라말라 출신 팔레스타인 기독교인 기소 없이 불법 구금 후 풀려나...
수감 중 가혹 행위 및 종교 차별 폭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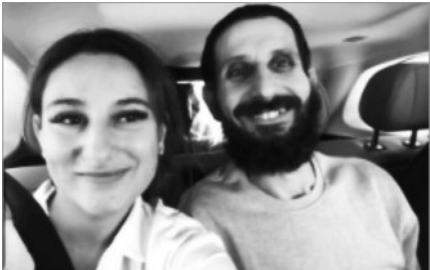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이스라엘 감옥에 정식 기소나 재판 절차 없이 32개월 동안 구금됐던 팔레스타인 기독교인이 최근 석방됐다고 8월 2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수감자는 구금 기간 내내 극심한 가혹 행위에 시달렸으며, 석방을 단 하루 앞두고서야 아랍어 성경 반입을 허가받는 등 심각한 종교 탄압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팔레스타인 라말라 출신의

기독교인 라미 파다엘이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행정 구금 상태로 32개월을 복역한 뒤 눈에 띄게 쇠약해진 모습으로 풀려났다. 파다엘은 석방 직후 현지 기독교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스라엘 감옥 내부의 열악한 환경을 고발했다. 그는 식량이 엄격하게 제한 배급되었고 구타가 매일같이 일어났으며, 면도날도 금지되는 등 감옥 내부의 상황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그는 수감 중 종교적 권리를 철저히 침해당했다. 예루살렘 법률지원 및 인권센터(JLAC)의 라미 살레 소장은 지난해 12월부터 파다엘의 성경 반입과 성직자 면회를 위해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다. 이스라엘 법원은 올해 4월 파다엘에게 성경책 제공을 허가하라고 판결했으나, 교도소 측은 두 달이 지난 6월 8일에야 그가 읽기 힘든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지급했다. 이마저도 7월 브엘세바 교도소 이감 과정에서 압수됐다.
파다엘 측의 지속적인 법적 이의 제기 끝에, 그는 구금 만료로 석방되기 하루 전인 8월 19일에야 본래 원하던 아랍어

성경을 받을 수 있었다. 파다엘은 석방 직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옥중에서 지켜낸 굳은 신앙을 고백했다.
성경 반입 지연과 더불어 성직자 면회 역시 끝내 불허됐다. 살레 변호사는 기독교 신앙에 따라 사제로부터 성례전을 받고 최소 연 1회 고해성사를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루살렘 라틴 총대주교청의 윌리엄 쇼말리 주교도 성경 전달과 수감자 방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의무라고 강조했으나, 이스라엘 교도소 당국은 이를 철저히 거부했다.

이스라엘 법원은 자국 법무장관에게 성경 반입과 성직자 면회를 불허한 사유를 오는 8월 29일까지 소명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살레 변호사는 법무장관실의 답변이 향후 이스라엘 감옥 내 팔레스타인 기독교인 인권 침해 소송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2023년 가자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 감옥 내 팔레스타인 기독교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살레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7일 이후 모든 수감자의 종교 서적이 일제히 압수됐으나, 이슬람교의 쿠란은 이후 반환된 반면 기독교 성경은 여전히



지난 20일 이스라엘 구금에서 석방된 라미 파다엘(Rami Fadayel)이 딸 마이사(Maisa)와 함께 있다. ©Courtesy of family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이스라엘 당국의 명백한 종교 차별을 비판했다. 현재 구금 중인 또 다른 팔레스타인 기독교인 나엘 할라비 역시 아랍어 성경책 지급을 요구하며 예루살렘 법률지원센터를 통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다니엘 최 기자

영국 기독교 축제서 간판 추락 참변으로 목사 사망



영국 이스트본의 지저스 리빙 워터 교회(Jesus Living Water Church) 담임 로버트 구안코(Robert Guanco) 목사. 41세인 구안코 목사는 지난 8월 28일 웨스트서식스에서 열린 ‘빅 처치 페스티벌(Big Church Festival)’에서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로 숨졌다. ©Facebook

지저스 리빙 워터 교회 비통함 속 추모 성명 발표 주최 측 행사 전면 취소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영국 웨스트서식스 지역에서 열린 대규모 기독교 음악 축제 현장에서 대형 간판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영국 이스트본 지저스 리빙 워터 교회의 담임 목사가 사망했다고 8월 3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서식스 지방 경찰청과 사우스 이스트 코스트 구급대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지난 28일 위스턴 에스테이트에서 열린 빅 처치 페스티벌 현장에서 추락한 대형 간판에 깔려 로버트 구안코 목사가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구안코 목사 외에도 총 5명이 응급 처치

를 받았으며 이 중 4명은 인근 지역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부상자 중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영국 최대 규모의 기독교 축제인 빅 처치 페스티벌 주최 측은 간판 추락 사고 직후 즉각 행사를 일시 중단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그러나 구안코 목사의 사망 소식이 최종 확인되자 남은 축제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관할 경찰 당국은 현재 사고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하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저스 리빙 워터 교회 애도 성명 발표
불의의 사고로 담임 목회자를 잃은

지저스 리빙 워터 교회는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비통함을 담은 추모 성명을 발표했다. 교회 측은 성도와 지인들에게 무거운 마음으로 슬픈 소식을 전한다며 로버트 목사가 세상을 떠나 슬픔과 애도 속에 있지만 이토록 힘든 시간에도 주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추모 성명에서 구안코 목사가 생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였으며 아내 이사야와 딸 엘리에게 다정하고 헌신적인 가정이었다고 회고했다. 또한 그의 따뜻한 돌봄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참된 축복이었으며 그의 신앙과 사랑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니엘 최 기자

필리핀 일로일로서 ‘Holy Spirit Conference 2026’ 개최

8월 31일~9월 3일 모리아교회서 진행

필리핀 일로일로 시티에서 현지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기 위한 ‘Holy Spirit Conference 2026(성령의 바람)’이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모리아교회(Moriah Mission Church)에서 진행된다.
이번 성회는 일로일로 City에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현지 교회와 목회자들의 영적 회복과 재충전, 성령 안에서의 치유와 부흥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저녁 성령집회를 비롯해 목회자 성령치유집회, 신학교 강의 등이 진

행되며, 현지 목회자와 신학생을 위한 세미나도 함께 펼쳐진다. 이를 통해 말씀과 기도뿐 아니라 실제적인 나눔으로 현지 교회와 목회자들을 지원한다.
이번 성회의 핵심 메시지는 ‘영적으로 참례된 땅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이다. 주최 측은 이를 통해 참석자들이 성령 안에서 회복되고 각자의 교회와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행사는 모리아교회가 주최하고 TMR6 태권도선교회와 포스테르찬양치유선교회가 주관한다. 김진영 기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열어갑니다

SFC 76대 전국위원, 새 임기 출발

국내훈련서 역사·정신과 운동 방향 공유
2027년 주제·연합별 사역·해외훈련 논의

전국학생신앙운동(SFC:Student For Christ) 76대 전국위원들이 국내훈련을 통해 SFC의 역사와 정체성을 공유하고, 새로운 1년의 사역 방향을 세웠다.

SFC는 지난달 24~26일 서울 광진구 SFC 교육훈련센터에서 76대 전국위원 국내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에는 최민규 76대 전국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박예빈 35대 교회연합위원장, 이희재 38대 학원연합위원장과 전국위원들이 참석했다. 공경

민 전국SFC대표간사와 김종용 전국SFC 총무간사 등 간사들도 함께했다.

76대 전국위원들은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민교회에서 열린 제80회 전국정기대회에서 선출됐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롬 8:37)를 주제로 열린 전국정기대회에 이어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는 위원들이 서로를 알아가며 동역 관계를 세우고, 전국SFC가 나아갈 방향과 향후 1년간의 사역을 논의했다.

훈련 첫날 김종용 목사는 '간사와 운동원의 관계성'을 주제로 강의하며 간사와 운동원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동역자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간사는 운동원들이 말씀 안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며 "과거의 운동방식을 따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운동하라고 하는지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공경민 목사는 'SFC 역사와 정신'을 주제로 SFC 운동의 핵심을 학생자발운동과 개혁신앙운동, 교회세움운동으로 제

시했다. 이를 각각 하나님 중심과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정리한 공 목사는 "SFC 리더십은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에 순복하며 지역교회를 세워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위원들은 훈련 기간 9월 전국위원회 운영과 2027년 주제, 연합별 사역, 해외훈련 계획 등을 논의했다. 직책별 모임과 교제를 통해 앞으로 1년 동안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과 관계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최민규 전국운영위원장은 "지금까지 전국SFC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1년간 나아갈 방향을 치열하게 고민했다"

며 "각자 경험하고 섬겨온 환경은 다르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는 마음으로 하나 됨을 확인한 기쁨 넘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 SFC 강령 구현을 위해 합차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가까이 섬기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박예빈 교회연합위원장은 "앞으로 1년 동안 함께할 위원들과 교제하며 서로를 알아가고, SFC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 감사했다"며 "이번 훈련에서 나온 고민과 교제를 통해 앞으로의 1년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희재 학원연합위원장은 "전국SFC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다시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어 즐거웠다"며 "서로 다른 학원 현장에서 운동해 온 동역자들과 교회 건설과 복음화를 이야기할 수 있어 기뻐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동하겠다"고 다짐했다.

SFC 76대 전국위원들은 이번 국내훈련을 계기로 하나님 중심성경 중심교회 중심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SFC 강령 구현과 복음화, 교회 건설을 위한 사역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각오를 다졌다.

장요한 기자

서울신대 공동체성경읽기 4년여간 65만장 돌파

구성원 83.9% 참여·42명 성경 66권 완독

서울신학대학교(총장 황덕형) 구성원들의 공동체성경읽기(PRS)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성경읽기와 독서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신대 PRS 핵심 앱 통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2년 2월부터 2026년 7월 28일까지 서울신학대학교 구성원들이 읽은 성경은 모두 658,746장으로 집계됐다. 성경 전체 1,189장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54독에 해당하는 규모다.

등록 구성원 1,895명 가운데 실제 통독에 참여한 인원은 1,590명으로 83.9%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들은 총 322,551회의 일일 통독을 완료했으며, 참여자 1인당 평균 통독량은 414.3장으로 나타났다.

성경 1독에 해당하는 1,189장 이상을 읽은 구성원도 131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성경 66권 전권을 완독한 구성원은 42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신학대학교의 통독 성과는 합성 앱을 활용하는 다른 대그룹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등록 인원 100명 이상의 대그룹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서울신학대학교는 등록 구성원 1인당 누적 통독량 347.6장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위 단체의 124.2장보다 약 2.8배 높은 수치다.

참여율에서도 서울신학대학교는 83.9%를 기록해 비교 대상 대그룹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체 합성 앱 대그룹의 통독 현황에서 서울신학대학교가 차지하는 비중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 앱 전체 대그룹의

누적 성경 통독량은 1,736,687장이었으며, 이 가운데 서울신학대학교가 읽은 성경은 658,746장으로 전체의 37.9%를 차지했다.

서울신학대학교의 등록 인원은 전체 등록 인원의 14.9%에 해당하는 규모였지만, 전체 통독량에서는 37.9%를 기록했다. 성경읽기뿐 아니라 독서 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서울신학대학교 구성원들의 독서(QT) 작성량은 39,111건으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성경 66권 전체가 최소 한 차례 이상 읽힌 것도 이번 통계에서 확인됐다. 누적 통독 기록을 기준으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의 모든 성경이 한 번 이상 통독됐다. 참여자 1인당 평균 완독 권수는 구약 57권, 신약 3.5권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누적 권 완독은 연인원 기준 14,569권에 이른다.

개별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읽힌 책은 시편이었다. 시편은 누적 188,431장이 통독됐으며, 이는 2위를 기록한 창세기 42,117장의 약 4.5배에 해당한다.

시편은 전체 통독 참여자 1,590명 가운데 1,581명, 약 99%가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1인당 평균 시편 통독량은 119장이었다.

시편에 이어 창세기가 42,117장으로 두 번째로 많은 통독량을 기록했으며, 출애굽기 31,384장, 마태복음 23,778장, 이사야 22,998장이 뒤를 이었다.

과정별 통독량을 살펴보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그룹의 활동이 전체 통독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STU_Everyday



서울신학대학교 구성원들이 공동체성경읽기(PRS)를 통해 성경통독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신학대학교는 2022년 2월부터 2026년 7월 28일까지 총 658,746장을 통독하며 약 554독에 해당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서울신대

자율그룹은 301,125장, STU_Week 자율그룹은 163,620장을 기록했다.

두 자율그룹의 통독량을 합하면 464,745장으로 전체 통독량의 약 70%에 해당한다. 구성원들이 정해진 일정에만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일정과 방식에 맞춰 자율적으로 꾸준히 말씀을 읽는 참여 구조가 주요한 동력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신학현장교육(신학과)에서 73,112장, 신학대학원SM에서 50,583장, 목회현장교육에서 36,995장의 통독 기록을 각각 나타냈다.

월별 통독량에서는 학기와 방학에 따른 차이가 확인됐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학기 중 월평균 통독량은 15,714장이었으며, 방학 중에는 5,168장으로 집계됐다. 학기 중 통독량이 방학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23년 통독량이 179,853장으로 가장 많았다. 2026년에는 7월 28일까지 모두 68,128장을 읽은 것으로 집계됐다.

장요한 기자

IVF, 창립 70주년 기념 ‘온가족 예배’ 개최

11월 7일 신용산교회서 학생·학사 세대 한자리에
“걸어온 70년 감사하고 세대 이어 일하실 하나님 기대”

한국기독교학생회(IVF)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7일 오후 3시 서울 신용산교회에서 TVF 70주년 온가족 예배를 개최한다.

1956년 캠퍼스에서 시작된 IVF는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았다. 이번 예배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한 26학번 학생부터 오랜 기간 IVF와 함께해 온 시니어 학사까지 여러 세대의 구성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IVF는 “지난 70년 동안 전국의 캠퍼스 곳곳에서 수많은 동역자가 하나님 나라를 꾸며주어 살아왔다”며 “70년의 시간을 이어온 IVF 온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걸어온 70년을 감사하고, 세대를 이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IVF의 모든 가족을 이 특별한 자리에 초대한다”고 전했다.

현장 참석을 위해서는 사전등록이 필



요하다. 행사장 안전과 수용 규모를 고려해 지방화별 참석 인원이 배정됐으며, 정해진 인원을 초과하면 참가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영남동부지방회의 학사 참석 인원은 선착순 10명이다.

사전등록은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할 수 있다. 문의는 IVF 70주년 온가족예배 준비팀 김혁수 디렉터(070-8275-6346) 또는 권다인 등록담당자(dain0149@ivf.or.kr)에게 하면 된다.

장요한 기자

조이선교회, 캠퍼스 복음화 동역할 간사 모집

10월 6일 자정까지 지원서 접수
11월 7일 선발시험·14일 인사 면접

조이선교회가 캠퍼스 복음화 사역에 함께할 간사를 모집한다.

1958년 한국에서 설립된 조이선교회는 예수님을 첫 번째로(Jesus first), 이웃을 두 번째로(Others second), 나 자신을 세 번째로(You third) 둘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JOY Spirit'을 바탕으로 지난 68년 동안 국내외 청년과 대학생들을 섬겨왔다.

조이선교회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고후 5:20)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섬기는 탁월한 그리스도인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캠퍼스 복음화의 부르심에 함께할 간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조이선교회 출신으로 대학을 졸업했거나 2027년 2월 졸업 예정인 사람이다. 지원서는 오는 10월 6일 자정까지 이메일(joyicm@naver.com)로 제출해야 하며, 마감 시한을 넘기면 지원할 수 없다. 제출 서류는 간사 하임 신청서와 신상명세서, 조이선교회 신앙관, 구원간사 헌신 간증문, 지부 책임간사 확

인서, 담당간사 의견서, 추천서, 건강 진단서, 최종 학교 성적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이다.

선발시험은 오는 11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조이선교회 휴먼스테이션에서 진행된다. 인사 면접은 같은 장소에서 11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심리검사는 지원서 제출 이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발표한다.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과 프리트레이닝, 간사훈련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조이선교회 인사관리팀 박선영 간사(joyicm@naver.com)에게 문의하면 된다.

장요한 기자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배로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마 22:35-39)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배(treasures)로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한 사람이 한 아이에게 맛있는 과자를 주려고 하는데 아이는 맛있는 과자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그저 그 어른의 손만 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이러한 경우처럼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을 때 우리의 관심이 선물을 주려는 그 사람보다 선물에만 있다면 그 관계는 성숙한 관계가 아닐 것이다. 왜냐면 선물보다 그것을 주려는 그 사람의 마음이 더 귀하고 고마운 것이기 때



조성환 목사

문이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가지 필요들과 부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어떤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맞추기 쉽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분의 손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예배라기보다는 자기가 받을 구호물품의 순서를 기다리는 심정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는 마음을 가득 채워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 위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다. 그런 예배에 주님은 노래하시고 춤을 추신다.

그래햄 켄트릭이라는 교수가 쓴 아름다운 찬양이다.

Knowing You
All I once held dear, built my life upon
All this world reveres, and wars to own
All I once thought gain I have counted loss
Spent and worthless now, compared to this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아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Chorus)
Knowing you, Jesus Knowing you
There is no greater thing
You're my all, you're the best
You're my joy, my righteousness
And I love you, Lord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아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Now my heart's desire is to know you more
To be found in you, and known as yours
To possess by faith what I could not earn
All surpassing gift of righteousness
지금 나의 소원은 주님을 더 알아라
내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지와
내가 주님의 것임을 내가 얻을 수 없던
주님의 놀라운 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것

Oh, to know the power of your risen life
And to know you in your suffering
To become like you in your death, my Lord
So with you to live
And never die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족속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이 참여하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의 응답이 귀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 조성환 목사
초등학교 때 선명회 어린이 합창단 단원으로 윤학원 교수의 지도 아래 여러 나라를 순회하며 연주를 하고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거쳐 1989년에 도미하여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UCLA) 음대 대학원 과정(Master of Fine Arts in Vocal performance)을 졸업하고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연주학 박사 학위를 마치고 현재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HIU)에서 교회음악과 과장으로 17년째 재직중이며 이민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인 남가주 사랑의 교회의 음악 감독으로 교회음악 전반을 책임지며 남가주 서울대 동창회 합창단의 상임지휘자로 섬기고 있다.

합창 리허설의 시퀀스와 우선순위



최상윤 교수

합창 리허설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음악적 문제들로 인해 어느 부분부터 고쳐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음악적 부분(음정과 리듬, 가사, 밸런스의 문제, 곡의 난이도 조절 등)과 음악 외적인 요인(날씨, 피로도, 환경적인 부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해진 연습 시간에 효율적인 연습을 위해 리허설 과정을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리허설 시퀀스를 생각해 보자. 일련의 연습 과정에 있어 가져가 되어야 하는 것은 지휘자와 단원들과의 지속적인 피드백 활동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합창단의 노래를 듣고 지휘자는 그에 대한 피드백(잘된 점과 수정해야 할 부분)을 이야기하고, 다시금 음악을 듣고 음악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잘 수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리허설을 이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이유 없는 반복 연습, 그리고 전체 연습 가운데 특정한 파트의 연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효과적인 연습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이유 없는 반복 연습, 그리고 전체 연습 가운데 특정한 파트의 연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효과적인 연습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이번에는 리허설 우선순위에 대해 생각해 보자. 리허설에서 음악적으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다면 무엇일까? 정확한 리듬과 음정으로 노래하는 것이다. 가령 음정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음정이 맞지 않는 이유(호흡, 소리의 톤, 모음, 디션, 선율 구조로 인한 어려움 등)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음정의 문제가 해

결되지 않은 채 연습이 계속된다면 그다음의 리허설 단계(파트 간의 앙상블, 블렌딩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왜냐하면 블렌딩과 앙상블 등은 음정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음정에 이어 리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듬의 정확성과 앙상블의 어택(attack), 리듬과 가사의 관련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별히 리듬의 문제는 음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

리듬의 문제는 음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 음정과 리듬이 해결된다면 그다음으로는 합창 톤(tone)과 아티큘레이션 및 디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합창의 톤은 모음(vowel)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모음을 만드는 데 있어 (1)호흡과 (2)소리의 방향성 (조점) 그리고 (3) 모음이 형성되는 데 필요한 공간(space) 등이 중요하다. 디션에 있어서 (모음은 피치를, 그리고 자음은 리듬과 뜻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또한 블렌딩과 좋은 인토네이션을 얻기 위하여 디션은 큰 역할을 차지한다. 이 외에 아티큘레이션과 프레이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티큘레이션과 프레이징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곡의 감정적인 부분과 캐릭터의 표현, 가사의 전달력, 그리고 음악을 이끌어가는 동력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 최상윤 교수
경희대학교 작곡과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FSU)합창지휘 석사
노스텍사스 대학교 (UNT) 합창지휘 박사
현 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 상임지휘자
장로회신학대학교 겸임교수



이선중 찬양예배자

찬양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느낌대로 마음껏 배설하는 것이 아니라 없었던 생명이 들어와 생명을 순산하는 것이다. 없었던 배에서 아이가 태동하고 드디어 산딸이 다 되어 태어난다. 찬양의 행위란 없는 것을 생기도록 자신의 영을 비우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으로 선언하는 행위가 아니다. 아주 연기를 잘하는 자는 그 배역을 가장 잘 재현하도록 자신은 죽이고 제3의 성격을 표현해 내는 것인데 마치 자신이 그 배역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 배역에 대한 배신이다.

찬양의 행위란 없는 것을 생기도록 자신의 영을 비우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으로 선언하는 행위가 아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환호한다. 그러나 그 환호가 나귀가 자신에게 칭송하는 줄 알고 으쓱하는 것처럼 이상한 것이다. 목에 힘이 들어간 가수들과 뮤지컬 배우를 보면 우스꽝스럽다. 감정 물입만이 다인 줄 아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느낌인 행동의 목적인데 생각해서 그렇다. 주인공이 살아있게 행동하는 것은 그 자신이 주인공처럼 행동하는 것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

오늘날 찬양하는 자들과 설교자들이 무대 앞에서 회중에게 피포먼스로 보여주면서 회중이 환호하는 게 그들 뒤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자신들의 영상, 표현기술, 칭송능력으로 착각한다. 그들은 찬양 해놓고(생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체행위인 찬양기술력을 의도한 자신을 스스로 높인다. 찬양리더나 지휘자나 찬양자가 여기에 빠지면 생명의 주관자인 신 하나님을 자신 밖에 두는 행위이다. 다 우상이다. 요즘은 이런 리더가 진행되는 예배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 갈수록 비어가는 회중 속에 여전히 자신을 과시하고 있는 예전 중심의 교회들이 있다. 그들 회중은 어디 가고 아직도 많은 전문 찬양자들과 설교가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회중은 어디 가고 주재자들만 남았다. 주재자들은 용케도 살아남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들은 그들 뒤에 하나님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기술력만 자랑한 것이다. 회중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현장에 계시지 않자 떠난 것이다.

우리는 말씀과 찬양이 몹시 세련된 현대 교회에 살고 있다. 시골이나 작은 교회에 뛰어난 지휘자와 찬양자와 설교자는 많지 않다. 그들 뛰어난 기술자를 고용할 예산도 없다. 하지만 대형교회는 명망 있는 설교가와 대학교수들이 지휘, 설교무대 자리를 차지한 지 오래되었다. 요즘은 심지어 중급 교회나 중급 찬양대조차 유학을 다녀온 설교자, 지휘자들이 무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어느새 우리들에게서 하나님과 접촉하는 영이 깊은 설교, 찬양은 설자리를 잃고 하나님 아닌 사람과 접촉하는, 더 많이 배우고 기술력이 뛰어나고 인간 소통을 잘하는 센스 있는 설교자, 찬양자들이 대접받고 있다. 말씀의 영과 찬양의 영보다 사람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입을 잘 놀리는 행위에 생명이 없으면 그 후에 사탄의 짓으로 쉬 변하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증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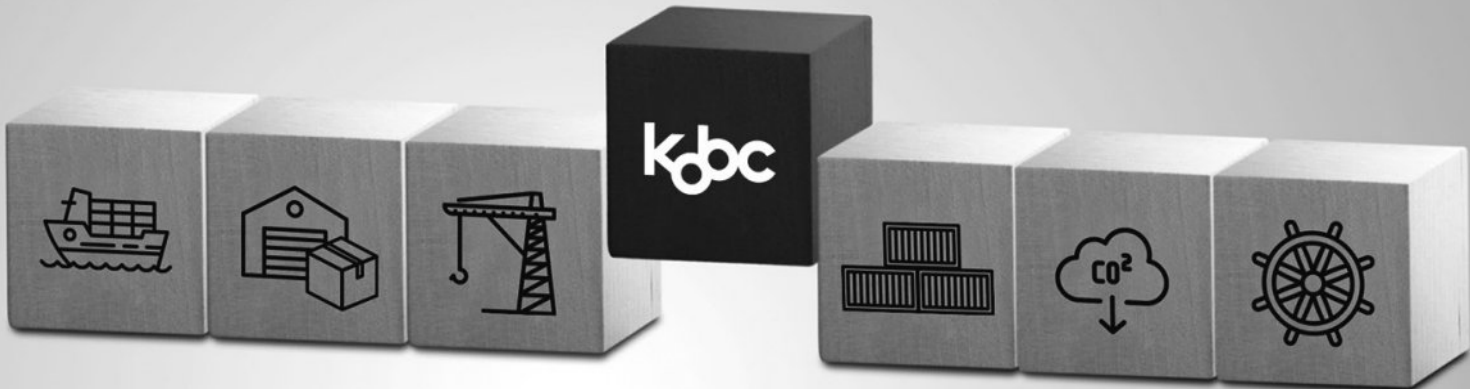
하나님과 예레미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다. 물론 처음엔 하나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던 스피커였던, 도시의 유능한 하나님의 입을 사용하지 않고 입이 둔한 무식쟁이 뽀나무 농사꾼을 들어 쓰셨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기호와 많이 다르신가 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멸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다수 인간들의 기호를 의식한 센스쟁이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 앞에서 멸절당했다. 예레미야는 단지 인간들의 기호를 의식한 센스쟁이가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는 대로 그대로 전하고 그 현장에서 자신의 메신저 역할에 그쳤다.

◆ 이선중 목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BA)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Master Christian Music(MCM)
Korea Presbyterian College of America(MDiv)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Thm) 수료
Cantor, Music Pastor
카리타스합창단 음악감독
VKCC 지휘자
성서 번역가



한국해양진흥공사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해양산업 맞춤형 금융지원!



해양산업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대한민국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양화진문화원, 제29회 ‘양화진음악회’ 개최

양화진문화원이 주최하는 제29회 ‘양화진음악회’가 9월 18일 오후 8시부터 서울 양화진외국인 선교사묘원 야외무대에서 펼쳐진다고 8월 31일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선보이며 마포구의 대표적인 문화 행사로 자리잡은 양화진 음악회는, 이번 무대에서도 깊어가는 가



을밤의 정취와 어우러지는 다채롭고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을 지역 주민들과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에는 세계 무대에서 활약해 온 정상급 연주자들이 대거 출연한다. 바이올린에 재독 연주자 이미경, 첼로에 핀란드의 마르코 율리넨(Marko Ylönen), 피아노에 박종화가 호흡을 맞춘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모차르트 ‘교향곡 12번 사장조’, 차이콥스키 ‘첼로와 현악 반주를 위한 안단테 칸타빌레’, 생상스 ‘카프리스-발스 웨딩 케이크’, 그리고 ‘바

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3번 단조’, 하이든 ‘첼로 협주곡 1번 다장조’, 멘델스존 ‘피아노 트리오 1번 라단조’ 등이 무대에 오른다.

출연진의 면면도 화려하다. 바이올리니스트 이미경은 16세에 메뉴인 아카데미 오디션에 발탁되어 유학길에 오른 뒤 쾰른 엘리자베스, 뮌헨 ARD 등 세계 유수 콩쿠르에 입상했다.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등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1998년 영국 레스터 드 몬포르트 대학 명예박사 학

위, 2021년 제53대 대한민국 난파음악상을 수상했다. 독일 뮌헨 국립음대 학장으로 은퇴한 후에는 MIMA(Mi-kyung Lee International Music Academy)를 설립해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첼리스트 마르코 율리넨은 독주자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수석, 현악 사중주 주자 등 다양한 편성의 실내악 무대로 스칸디나비아와 전 세계를 누볐다. 뉴욕 카네기홀과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바우 등에서 독주회를 열었으며, 바르코부터 현대 음악까지 방대한 레퍼토리를

소화하고 있다. 핀란드 LaruFest를 이끌며 실내악 대중화에 열정을 쏟고 있으며, 2009년부터 시벨리우스 아카데미 교수로 재직 중이다.

피아니스트 박종화는 일본, 미국, 유럽을 거치며 음악적 토대를 쌓았고, 벨기에 쾰른 엘리자베스 콩쿠르 등 국제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C. 슈나벨, 아르헤리치 등 거장들과 교류하며 전 세계 유수 공연장에서 연주해 왔다. 특히 도심 속 공공 피아노 설치 예술인 ‘달려라 피아노’ 등 클래식 문턱을 낮추고 대중과 소

통하는 다양한 문화 기획을 펼쳐왔으며, 2007년부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 교수로 후학을 길러내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양화진문화원은 민족의 독립과 근대화에 앞장섰던 초기 기독교 정신이 담긴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등을 관라·운영하는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가 교회와 사회의 소통을 위해 설립한 부설기관이다. 초대 명예원장인 고(故) 이어령 교수의 뒤를 이어 현재는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김현 교수가 원장을 맡고 있다. 노형구 기자

태항호 진행 기독교 팟캐스트, 유튜브 하이프 국내 5위

‘교회는 안 다니는데 공금은 하네요’ 3회 화제
론칭 3주 만에 채널 누적 조회수 52만 회 돌파

배우 태항호가 진행하는 기독교 토크 팟캐스트 ‘교회는 안 다니는데 공금은 하네요’가 유튜브 하이프(Hype) 국내 순위 5위에 올랐다.

1일 버티컬 프로젝트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공개된 3회 ‘북한에 기독교가 진짜

있나요?’ 편은 공개 사흘 만인 30일 유튜브 하이프 국내 5위를 기록했다.

하이프는 시청자가 응원하고 싶은 영상에 직접 응원을 보내 순위를 결정하는 유튜브의 참여형 리더보드다. 제작진은 예능과 게임, 음악 콘텐츠가 주를 이루는

상위권에 1시간 분량의 기독교 콘텐츠가 진입한 것은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다.

‘교회는 안 다니는데 공금은 하네요’는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기독교가 궁금한 배우 태항호와 교회에 다니면서도 신앙에 여러 의문을 품은 대중음악평론가 김호현이 함께 진행하는 기독교 토크 팟캐스트다.

지난달 13일 론칭한 이후 1회가 조회수 23만 회를 기록했고, 3회는 공개 나흘

만에 22만8000회를 넘어서었다. 채널 누적 조회수도 론칭 3주 만에 52만 회를 돌파했다. 시청자들은 댓글을 통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기적이다”, “앞으로도 이런 채널은 꼭 필요하다”, “이쯤 되면 이 채널 제작자가 궁금해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화제를 모은 3회에는 탈북 방송인 윤설미가 출연해 북한 체제가 성경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전

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진행자 태항호와 신앙인 게스트 사이의 시각차도 방송에 담겼다.

윤설미는 방송 말미 태항호에게 “빨리 오지 마세요. 밖에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라고 말해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오는 3일 오후 5시 공개되는 4회 ‘기독교나 이단이나 똑같지 않나고요?’ 편에는 김시은 기자와 윤태림 대표가 출연해 한국에 이단이 많은 이유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교회는 안 다니는데 공금은 하네요’는 버티컬 프로젝트가 제작하고 김영광이



배우 태항호가 진행하는 기독교 토크 팟캐스트 ‘교회는 안 다니는데 공금은 하네요’ ©유튜브 캡처

연출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새 에피소드는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공개된다. 다니엘 최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05:00	00 광림교회 제38회 호렙산 기도회 39일차 40 하나님의 손길	20 365 새벽기도	00 생명의 삶 2026년 09월 02일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09월 02일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CBS 은혜의 시간(125회) 30 TV강단 영광제일(1기용)	20 복음으로 미래를 열다(3회) 30 2026 명성교회 9월 특별새벽집회
0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 안식제일-허요한 30 생명의 말씀 부산초량-김대훈	10 GOODTV 오늘의 기도 20 사랑의 메시지 부인 (박현영) 50 GOODTV NEWS	10 [말씀] 김오성 목사(영락교회)(261회) 50 [말씀] 황성수 목사(한사랑교회)(9회)	00 생명의 양식 상송(김형석) 30 믿음의 말씀 (김대조)(376회)	40 성경 속 전쟁사-에피소드
07:00	00 CTS뉴스 20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4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50 생명의 말씀 청원성남-이창교	1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20 행복한 쉼터 대구서문 (소문수) 50 비전설교 한성 (도원욱)	30 휴먼네트워크(54회)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738회) 40 찬양예배 주남개 말기는 시간(1837회)	00 청운교회 주일예배상황 이필산 목사
08:00	20 내 영혼의 찬양 Praise 40 서정희의 매일성경(128회)	2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3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9월 02일 20 [말씀] 정감신 목사(예수행복교회)(598회)	00 하나님의 음성(20회) 20 CBS 성서학당 (최주훈)(4551회) 명화로 읽는 그라스도의 생애 18강	00 성지가 좋다(645회) 요르단, 마케루스 30 비전메시지 은혜대림교회 최찬신 목사
09:00	00 신교회행전(5회) 군포교회 5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역사서편] 역대기 6장 4장 이정 훈 목사	00 시토피아 12세 30 비전설교 선한목자 (김다우)	00 [말씀] 이진호 목사(순복음대구교회)(146회) 40 바이블 필름 (마가복음)(12회) 50 구약의 세계로 (오삼소)(2(29회)	10 새롭게하소서(11489회) 윤성철 목사 2부	00 플다보면(34회)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 대살로니가에서 40 성경 속 인물사(22회) 약속의 자리를 지킨 이삭
10:00	4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00 다크 더 로드 30 여의도순복음 수요일예배 이영훈 목사	20 RE바이블(43회)	00 CBS NEWS 10 20 맨투맨 처치2(1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32회)	00 김재원의 꿈이예찬(30회) 탁구공에 실은 복음-양영자 선교사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
11:00	00 7000마라톤-열방을 향하여 배네수엘라 지진 피해 특집 50 신앙예세이	30 행복한 쉼터 화광 (윤호균)	10 [말씀] 백성욱 목사(오늘의교회)(11회) 50 Q&A 107 소요리문답(18회)	00 예수 영광의 면류관(9회)	00 소문난 성경교실(748회) 이기철 목사 첫 번째 14강 은혜로 읽는 창세기 : 아들 이름 짓기 30 C채널 매거진 굿데이(420회) 50 믿음의 라엑선(25회) 제주도 1
12:00	00 CTS뉴스 30 생명의 말씀 하늘중앙-유영완	00 GOODTV NEWS 20 이영훈 목사의 힐링 스토리 30 사랑의 메시지 마라나타 (이영은)	10 바이블 필름 (마가복음)(12회) 20 [말씀]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556회)	00 TV강단 시온(박성준) 30 TV강단 포도나무(여주봉)	30 강연소 통(77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13:00	00 생명의 말씀 대구반야월-이승희 30 신앙예세이 40 서정희의 매일성경(128회)	00 행복한 쉼터 오메가 (황성은) 30 행복한 쉼터 세계로방주 (방재길)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107회)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64회)	20 2025 한소망교회 감사 부흥회(3회)	20 플다보면(34회)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 대살로니가에서
14:00	00 [생방송]Calling GOD(2561회) 50 내가 매일 기쁘게(3565회) 진산규, 박보경 부부 1부	00 GOODTV 특별간증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9월 02일 20 온누리교회 수요일예배시(409회)	00 말씀의 힘 양곡(지용수) 30 새롭게하소서(11114회) 정유나 수행비서 2부	00 백석의 선택(27회)
15:00	40 7000마라톤-열방을 향하여 배네수엘라 지진 피해 특집	00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곰	00 [말씀]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기쁨의교회)(345회) 40 생명의 삶 2026년 09월 02일	20 CBS 성서학당 (송태근)(4549회) 고린도후서 25강	00 2026 명성교회 9월 특별새벽집회
16:00	30 생명의 말씀 두란노-이상문	00 사랑의 메시지 성찬 (오원호) 30 행복한 쉼터 세계로방주 (방재길)	00 하종조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57회) 40 바이블 필름 (마가복음)(12회) 50 [말씀] 안광복 목사(상당교회)(326회)	10 하나님의 기쁘시게 7004(108회)	00 청운교회 주일예배상황 이필산 목사
17:00	00 사랑의 말씀 오정현 50 오정현 목사의 비전목성 3분 미라클	0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사본의 꽃 필 때	30 [말씀]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359회)	10 더 클링(155회) 3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2039회) 50 영혼의 양식, 양천(김동진)	00 성지가 좋다(645회) 요르단, 마케루스 3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 예원-정은주 30 TV찬양예배 한성교회	10 사랑의 메시지 출전 사랑의(윤대영) 40 더 깊은 울림 여의도침례 수요 필 워십	10 THE NEW 하늘빛항기 (46회) 50 714 연합기도대성회 (복음의 증인, 기도로 서는 교회)(4회)	00 TV강단 한성(도원욱) 30 TV강단 남양주한마음(남상진)	30 복음강단 군포세리교회 안성복 목사
19:00	2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30 광림의 시간 김정석	00 조용기 목사, 명성교	00 714 연합기도대성회 <복음의 증인, 기도로 서는 교회>(4회)	00 거룩한 뜻, 세움의 시간(75회) 30 TV강단 (천영태)	00 말씀의 창 인천제2교회 노완석 목사 30 명성교회 수요기도회
20:00	30 생명의 말씀 세한-주진	00 이영훈 목사의 힐링 스토리 10 행복한 쉼터 감사드림 (차영아) 40 노크토크	20 RE바이블(43회)	00 한소망 말씀 (최봉규)(181회) 50 크리스천칼럼, 분당구미(김대동)	30 글로벌 신앙토크쇼 왓츠업(61회)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
21:00	00 메신저스 원유경 목사 30 서정희의 매일성경(128회) 50 CTS뉴스	40 GOODTV NEWS 12세	00 창동염광교회 주일예배 2026년 09월 02일	00 CBS 성서학당 (최주훈)(4551회) 명화로 읽는 그라스도의 생애 18강 50 살롱 살롱(45회)	10 김하나 목사의 말씀강해(211회)
22:00	2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역사서편] 역대기 6장 4장 이정 훈 목사	00 다니엘 기도회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26년 09월 02일 3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44회)	00 CBS NEWS 10 20 새롭게하소서(11489회) 윤성철 목사 2부	0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643회) 20 소문난 성경교실(745회) 이기철 목사 첫 번째 11강 은혜로 읽는 창세기 : 광야에서 열린 하늘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23:00	10 [CTS믿음의 명작] 밀레니엄특강 영어강사 정철 25강	0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매일 주와 함께	10 J.D. 그리어의 다윗의 삶(33회) 40 생명의 삶 2026년 09월 02일 50 바이블 필름 (마가복음)(12회)	10 맨투맨 처치2(18회) 40 잘 믿고 잘 사는 법(18회) 50 찬양예배 주남개 말기는 시간(1837회)	00 아서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274회) 50 라바이즈 워십
00:00	00 Calling GOD(2561회)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10 사랑의 메시지 순천 신성 (김만철) 40 선교의 땅 탄자니아를 가다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09월 02일 20 CGN 비전특강(700회)	10 하나님의 음성(20회) 30 세상을 보는 창(323회)	00 사랑의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정현 목사
01:00	00 더 초전 시즌1(더빙)(1회) 15세	10 예배실황 한소망 (류영모/최봉규)	00 [말씀] 화종부 목사(남서울교회)(428회) 40 [말씀] 주승중 목사(주안진로교회)(270회)	00 통복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10회) 40 성령의 시대(56회)	00 THE 깊이 궁금한 신앙, 몰랐던 이야기(87회) 40 성경 속 인물사(22회) 약속의 자리를 지킨 이삭
02:00	10 7000마라톤-열방을 향하여 배네수엘라 지진 피해 특집	10 노크토크	2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668회)	30 말씀의 힘 양곡(지용수)	00 말씀의 창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 40 김병삼 목사의 365 매일만나 (주남은 나의 최고봉)(142회)
03:00	0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역사서편] 역대기 6장 4장 이정 훈 목사 5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10 GOODTV 특별간증	00 [Global Sermon] J.D. Greear's The Life Of David(33회) 30 [말씀] 류용렬 목사(와신통증양장로교회)(317회)	00 울포원(766회)	00 만나 워십 감병삼 목사
04:00	00 TV새벽예배 만나교회 40 내 영혼의 찬양 Praise	0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여의도제일 (박대준) 30 새벽을 깨우는 기도 50 GOODTV 새벽예배 이영훈	10 [말씀]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750회)	00 CBS 성서학당 (김기석)(4550회) 마태복음 46강 50 CBS 교회소식(1066회)	00 클래식 말씀의 창(17회) 이동원 목사 30 말씀 관통 이름 목사의 성경 백집기(482회) 고린도전서 12장 백집기 8